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자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약한 세상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96호 2012년 8월 1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치킨까지도 동성결혼 반대한다!

미 언론, 칩팔레 대표 동성결혼반대 천명으로 "본격적 문화전쟁 시작" 보도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샌드위치 체인점 칩팔레(chick-Fill-A)가 최근 동성결혼 논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지난달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 회사 CEO 캐시(D. Cathy)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와 지지 운동이 경쟁적으로 벌어지면서 동성결혼을 넘어 성경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휴스턴, 마이애미, 애틀랜타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칩팔레 체인점에서 수백 명의 고객들이 샌드위치를 주문하려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은 2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도 활기찬 모습이었다. 자동차에 탄 채 주문하는 드라이브-투에선 앞차 고객이 뒷차 고객에게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 허커비 아칸소 전 주지사가 주도한 '칩팔레 감사의 날'을 맞아 보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칩팔레는 현재 39개주에 1600개 체인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니겔에 있는 칩팔레를 방문한 마크 엘리(39)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지금까지 칩팔레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을 지지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ABC방송은 길게 줄지어선 풍경을 전하며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진영이 칩팔레에서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칩팔레' 동성애 논란은 이제 동성결혼 논란이 교회, 정치권, 기업을 벗어나 미국인들의 일상에까지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순절 계열 '카리스마' 지가 정확하게 분석한 것(The Plan For a Gay(Domi) Nation)처럼 미국 인구 중 2%에 불과한 동성애자들이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구도를 급진적인 동성애 진화 또는 옹호 체제로 변화시키려는 획책에,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로 치킨 체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크리스천 기업인이 바로 제동을 건 것이 바로 현재 뜨겁게 미국을 달구고 있다.

'칩팔레'는 그동안 동성결혼 반대 단체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온 데 이어 최근 캐시 대표가 이성간의 '전통적 결혼'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캐시 대표는 지난달 2일 한 침례교 매체(Baptist

Press)와 인터뷰에서 "성경 원칙으로 움직이는 나라에 살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며 결혼은 성경에서 정의한 남녀의 결합이고, 이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도 유명한 칩팔레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비롯해 그동안 기독교 윤리를 표방하는 보수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해왔다. 미국 39개 주와 워싱턴DC 등에 1천6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칩팔레'는 캐시 회장의 아버지인 트루엣 캐시가 1946년 조지아 주를 기반으로 창업한 기독교 기업으로 설립 당시부터 일요일에 매장 문을 열지 않는 등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경영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웹진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인용, "칩팔레"는 지난 2010년에만 200만 달러를 반동성애 운동단체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캐시 대표의 발언 이후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다. 진보주의 성향이 농후한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일부 시에서는 시장이 칩팔레 체인점의 개점을 불허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논쟁이 더 가열됐다. 정치권의 이런 강경정책에 대해선 일부 진보적 매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회사 대표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사업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각각 칩팔레에 대해 찬성과 반대 글을 쏟아내면서 사회적으로 들끓었다.

<3면으로 계속>

'기도와 말씀' 함께 여름방학 마무리

크리스천패런팅, '백투스쿨' 시즌 가이드 제시

자녀들이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백 투 스쿨'(Back to School) 시즌이 다가왔다. 어른들도 여름휴가 후유증을 겪듯, 거의 두 달 가량의 긴 여름방학을 지낸 학생들도 개학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게 마련.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자녀일수록 등교 거부현상이 더 심할 수 있다. 따라서 개학 준비를 위한 사항을 몇 가지 점검해본다.

먼저 학교스케줄에 맞춰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도록 미리 수면스케줄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부모들도 스스로 새 학년도 개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이 새 학년을 쉽게 적응하도록 격려의 말을 해주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는 점을 설명해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노력한다.



기초스킬(노트정리, 청취력, 공부, 필력, 시간관리) 점검 성적에만 너무 치중 말고 가치관, 태도, 행동에도 비중

먼저 기초 스킬(basic skills), 즉 노트 정리하는 법, 잘 듣는 능력, 공부하는 법, 글쓰기 능력, 시간 관리법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읽기(reading)는 모든 과목의 기초이다. 책읽기는 가족이 같이 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이나 책방을 가족 모두가 함께 방문하는 평소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교 학생들은 친구들의 압력(peer pressure)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법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친구들을 꼭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백 투 스쿨(Back to School)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효과적이다:

1. 자녀의 깊은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듣는(active listening)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자녀가 말할 때 중간에 참견하거나 성급하게 비판적으로 충고하거나 제안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 자녀의 말을 잘 듣도록 노력한다.

<3면으로 계속>



2면

"기독교적 가치와 기업윤리 지키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



7면

사편은혜나누기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7면

특별기고
노봉린 박사



16면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2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2년 9월 7일(금) 오후6시
- 3 입학 시험 : 2012년 9월 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성 훈련 : 2012년 9월10일(월) - 12일(수)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시론

나의 멘티는 누구인가?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목회자에게는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책 박스들 때문입니다. 그 책들을 옮기는 것은 고사하고 박스들을 구해다가 싸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사할 시간이 다가오기에 급한 마음으로 집을 싸다가 툭 떨어진 '수신편지'라는 큰 봉투 하나를 퍼들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써 놓고는 오랫동안 있고 지내면서 그것이 어디 있나 궁금하던 차에 발견한 것입니다. 대개 옛날에 받은 편지들의 묶음입니다. 그중엔 봉투의 가장자리에 빨강 파랑으로 되어 항공우편임을 알게 해주는 편지가 있어서 대번에 내가 찾던 편지임을 알았습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내가 평생 멘토로 생각했던 분, 나를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으나 지금은 고인이 된 무명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선교사로 가서 오래 계셨기에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잘 만나지 못했고, 또 외롭게 선교지에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생의 작별도 나누지 못한 분입니다. 나의 고교시절 때부터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후 선교를 떠나시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멘토(mentor)와 멘티(mentee)의 관계로 자리 잡은 분입니다. 나 역시 선교지로, 미국으로 옮겨 다녔기에 서로 만날 수 없었고, 그랬기에 수신 통의 편지가 오히려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펜으로, 혹은 워드프로세서로 대어섯 페이저나 되는 장문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편지봉투에서 하나가 툭 떨어져 무심결에 맨바닥에 떨어뜨려 놓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펼쳐보고 보니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내용을 정성들여 읽기 위해 연필로 문단마다 제목을 써가면서 읽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 나름대로 그 말씀들을 명심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여러 가지 주제의 글들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같이 선배 목사로서 후배목사인 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내용들이었습니다. "목사는 물질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시간의 십일조(하루 2시간 24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즉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의 십분의 일은 가져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니까 어떤 경우라도 시간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로 기도문을 써서 그것을 반복하여 기도를 드리며 외워라." "체력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 일주일에 5회 정도는 꼭 뛰여라. 나는 준비체조, 조깅, 오리걸음, 푸시업, 마무리체조 등 전부 합해서 40-50분 정도를 쉰다." 모든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었습니다. 풀이켜 보니 이중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 부끄러웠지만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짚어주는 듯하여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것은 마지막 한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등록하는데 보태서라." 십수 년 전 미국에서 어렵사리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선교비 중 일부로, 그것도 평소에는 가난을 벗삼아사는 청빈한 목사님이 그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를 보내준 것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다가 드디어 울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울었고, 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신 선배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울었고, 나 역시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런 선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달라스신학교의 헨드릭스 교수에 의하면 멘토란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계속 성숙해가도록 도와주며 그가 그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데 헌신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목적을 높이는 이때에 정작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 갈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무엘이 다윗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것처럼 가까이 있는 성장하는 후배들을 멘토로 세우고 음으로 양으로 사랑하고 도와 주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멘티가 멘토를 찾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멘토가 멘티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절실하고 더 성경적입니다. 담임목사라면 대상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교역자를 뽑을 때 신중하고, 또한 세워진 부교역자를 사랑하고 사역을 잘 전수하면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 학생 중 하나 둘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도움을 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멘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연결된 멘티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기업윤리 지키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

크리스천포스트, 성공한 기독교 기업 '칙필레' 창업주와 창업 원리 소개

회사명인 '칙필레'는 저민 닭살코기를 뜻하는 '치킨 필레'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름에 맞춰서 치킨 버거를 주력메뉴로, 패스트푸드점이지만 나름 고급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며 독특하게도 주일에는 휴무를 하는 곳이다.

칙필레는 애틀란타 주 출신의 트루엣 캐시(Truett Cathy)가 창업한 치킨샌드위치 레스토랑 회사로 일종의 패스트푸드 기업이다. 트루엣 캐시는 하숙집을 하는 어머니와 경제 대공황으로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10대의 나이부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해야 했다.

그러다 1946년 세계2차 대전의 와중에 치킨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하나를 열었다. 현재 칙필레는 미국에서 센터프



소비자 삶의 질 높이는데 깊은 관심 어린이들에 동화, 도서, 유익한 CD 등 제공

라이드치킨(KFC) 다음으로 큰 치킨푸드업체로서, 미국 전역에 13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주 우수한 경영 실적과 지속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 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레스토랑 업체가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많은 주부들이 일요일에는 요리하지 않고 외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남침례교 출신인 창업자 트루엣 캐시가 창업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원칙 중의 하나이다. 트루엣 캐시에 따르면,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향하도록 하게 만드는 길이다."

싸고 간편해서 미국인들이 즐겨 먹기는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비만

과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악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맥도날드가 이와 같은 비판의 정면에서 있는 반면에 칙필레는 이 비판을 비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직원들을 배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미래 미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닭고기와 관련된 패스트푸드만을 판매하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급의 치킨 필레"를 판매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트루엣 캐시가 레스토랑을 처음 열었을 당시 미국인들은 햄버거를 즐겨 먹었고 닭고기는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어서 그가 치킨 샌드위치를 개발한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치킨 상품만을 고집했던 그의 선택은 쇠고기 대신 닭 가슴살 고기를 선호하게 된 미국인들의 식생활 변화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게 돼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을 거

듣하게 됐다. 이 회사는 닭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는 구호("Eat More Chikin")를 광고로 애용하고 있다.

칙필레 레스토랑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 회사가 이윤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트랜스 지방이 사회 문제로

거론됐을 때,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먼저 트랜스 지방 쓰는 것을 중지해 소비자의 건강을 앞세운다고 하는 회사의 원칙을 증명해 보였다.

이 회사가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판촉물들은 다른 레스토랑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들과 다르다. 맥도날드나 웬디스, 버거킹과 같은 대부분 레스토랑 회사들이 값싼 장난감들을 끼워주고 있는 반면에, 칙필레는 동화, 어린이 도서,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CD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회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젊은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1984년에 한 재단(WinShapeFoundation Inc.)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재단을 통해 남녀 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개설하고, 수십여 곳의 어린이 보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창업주 트루엣 캐시는 교회에서 44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바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으며 성공의 비결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에 의하면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결국 트루엣 캐시에 따르면 기독교 정신과 기업 윤리를 가지고 소비자 직원들을 위한다면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그는 지난 60여년의 사업을 통해 기독교 기업이 지향해야 할 기업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독교 정신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능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기업 윤리를 온전히 지키는 일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임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복음 장로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담임목사: 김 상 덕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캄보디아 미얀마에 48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본 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하며 감사예배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6.25 전쟁에서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을 초청하여 인사를 드리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감사예배: 8월12일(주일) 오전 11시
- 감사찬양제: 8월12일(주일) 오후 7시 30분
- 6.25참전용사 초청잔치: 9월15일(토) 오후 5시

장소: 복음장로교회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전화: 562-694-6214

복음장로교회
(KAPC 남가주노회)

동성결혼 논쟁의 '최전선' 칩펠레

(1면에서 계속)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전 아칸소 주지사인 마크 허커비 는 전 공화당 예비 경선주자였던 릭 샌토럼 후보와 함께, 8월 1일을 '칩펠레 감사의 날'로 정하고 지지 방문을 호소했다. 그러자 63만여 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또한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

날 칩펠레는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동성애자 집영의 반격이 다시 시작됐다. 3일을 '전국 동성 키스의 날'로 지정하고 칩펠레 매장 앞에서 동성 커플끼리 키스를 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피켓을 들고 칩펠레 매장 앞에서 찍은 '키스 인증샷'이 이날

이슈로 떠오른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찬반 세력이 미전역에서 맞붙은 사건이 됐다. 미국 언론은 동성결혼 이슈를 둘러싼 '문화전쟁'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칩펠레 전쟁'에서 일단 동성결혼 반대파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그동안 찬성과 주도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문혔

보수 복음주의적 진영이 SNS 매체를 통해 결집했고, 이를 실제로 행동하는 일차원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CNN방송은 "칩펠레 사건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칩펠레 대표에게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동성애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는 최근까지도 동성애자들의 전유물이었

8월1일 '칩펠레 감사의 날' 창사 후 최고매출 기록 동성애지지단체들 불매운동·체인점 개점불허 대항

였던 새라 페일린은 공개적으로 이 회사의 프라이드키친을 계속 사먹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2억 명에게 설교한 '전설의 목사' 빌리 그레이엄도 9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칩펠레를 점심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다수 올랐다. 그러나 매장당 평균 10여 명의 동성애자가 모이는 등 미미한 수준이었다.
결국 '칩펠레 논란'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으로, 미 대선의 핫

던 반대파의 반발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격인 성격을 띠는 '칩펠레', '차킨 전쟁'은 향후 오바마의 대선 장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도 자신들이 불편해하고 꺼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이 유지된다는 진실을 이번 '칩펠레' 전쟁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도와 말씀' 함께 여름방학 마무리

(1면에서 계속)
2. 학교에 문의할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다. "학부모인데요"라고만 하지 말고 학생의 이름, 학년, 반을 정확히 제시하고, 미리 질문사항들을 정리해서 메모한 후 연락한다.
3. 자녀의 성적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치관, 태도, 행동에도 비중을 두라. 자신감(confidence), 동기(motivation), 노력(effort), 책임감(responsibility), 솔선수범(initiative), 인내심(perseverance), 남을 도와주는 정신(caring), 팀워크(teamwork), 상식(common sense), 문제 해결력(problem

solving) 등의 메가 스킬들(mega skills)이 자녀가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스킬이다.
4. 자녀를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픽업하는 일로만 그치지 말고 학교 일에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참여한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모가 자녀의 학급이나 학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5.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돈 관리(money management), 분노 관리(anger management), 좌절감에 대한 참을성(tolerance for frustration) 등도 학교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중요한 스킬이다.

6. 자녀를 방과 후 학원에 보내신다면 그 학원에서 자녀들을 잘 감독하고 가르치는지, 픽업은 안전하게 하는지, 자녀들의 정규학교의 스케줄 변경 등 가정과 학교와 학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7. 학교 교사, 카운슬러, 교감, 교장들을 만나려면 시간을 내도록 미리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다. 방문 때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먼저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원하는 말씀을 하라.
8. 학교생활 외의 방과 후나 학생의 개인적 생활에도 자녀들이 모든 학생들과 어울리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라.
9.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모니터(monitor)한다. 컴퓨터 사

용이나 이메일에도 지켜야 할 에티켓, 즉 네티켓(netiquette)이 있으며, 인터넷에 친구나 교사를 욕하는 말을 올렸다가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학 동안 어떻게 생활했고, 계획했던 일을 잘 실천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방학동안 잘했던 점, 힘들었던 점, 잘못했던 점, 좋았던 점 등을 쪽나열해서 쓰도록 해보자. 그리고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점검하면서 여름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백 투 스쿨을 알차게 맞이한다.

제7차 세계 교육선교 컨퍼런스

12월 3-5일 WCSN 주최 미드웨스트대학교에서

세계 크리스천스쿨네트웍(WCSN, 설립자 제임스송 Midwest University 총장)이 주최하는 제7차 세계교육선교 컨퍼런스가 올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미드웨스트 대학교에서 열린다.
전 세계 인재 발굴과 양성을 통해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시작한 동네트웍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선교지에서 미국대학교 분교설치와 부설 K-12 국제학교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학생관리, 재정관리 등 종합적인 학교운영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안내하게 된다.
매년 세계 중요 지역(미국, 태국, 케냐, 한국, 이스라엘 등)에서 세계교육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마다 많은 교육선교사들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IEC(국제교육협력기구)와 협력해 선교지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 지도자로 키우는 선교지 교육사역에서 단기간에 자립기반

을 구축하고 지도자 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해외 학교사역, 한국에서 기독교대한학교 설립 운영, 교육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해외에 국제학교 설립 준비, 기존의 학교를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미국대학의 분교설치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원하는 자들이 참가할 수 있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IEC/WCSN 멤버십을 부여하며 멤버 학교에는 미국인 교사를 파견,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국제학교, 대학분교)하며 학교의 여름방학 등 특별 프로그램에 교육협력봉사단(교사)을 파견하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IEC) 국제교육협력기구, 세계크리스천스쿨네트웍(WCSN), Global Gateway University(GGU), Federation of International Schools(FIS) 등이 협력해 개최한다.
▲이메일: Jp@Midwest.edu
▲인터넷전화: 070-8690-2662
(정리: 유원정 기자)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내 영혼의 별장 시 77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딪쳐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혹은 그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이 이제는 나에게서 피해 가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들을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 볼 때에 힘이 생깁니다. 각각의 삶 가운데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신 것을 향하여 생각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성막에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내 인생에 나타나셨던, 또 성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현재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아 있는 현재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좌절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사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14절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홍해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힘 얻은 후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 줄 아는 훈련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격정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걱정과 불안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차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관을 따라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누렸습니다(눅22:39). 그것을 예수님이 쉬신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피곤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푹 쉬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가 피곤할 때는 힘을 주면서도 생각에는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이 피곤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생각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갈 때 나의 생각이 문제 가운데서 쉴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 휴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좌절 되고 낙심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 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 주었다 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탕자가 걸어도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더러운 모습으로 오는 것을 안아서 사랑으로 덮어 주시는 분도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는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고, 그 더러운 것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시는, 허기져 있는 우리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시는 내 아버지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손, 모든 것을 소성시켜 주셨던 그 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려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그 손,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셔서 항상 내 손을 붙들어주시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주시고 위로해주시던 내 주님의 손, 그 손을 붙들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누립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을 바라봅시다.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피곤한 나의 생각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안식하고, 또 충성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받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아멘.

교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의 사람, 성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라!

미주성결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Effective and Powerful Leaders that can Change the World

■ 미주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의 특징

-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 부흥하는 기독교미주성결교회가 설립/운영하는 교단 신학대학
- 졸업 후 절차에 따라 남녀 목사안수하며, 선교사와 전문상담가 등으로 사역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및 ABHE 회원 가입(Candidate Institution)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성적과 자격에 따라 등록금 80%까지 장학금 지급 가능(11 종류)
- 편리한 위치에 현대식 도서관과 휴게실 등 좋은 학습환경
- 한국(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국(기독교미주성결교회)등 모든 교단이 인정하는 학위와 자격취득

■ 학위과정

학 부: 신학사 (B.Th.)
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상담학 석사(M.C.C.), 선교학석사(M.M)

■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세례를 받은 자로서 중생의 체험과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원서접수: 8월 20일
3. 입학서류: 본교 소정 양식 (웹참조)
4.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접 (장학생 선발)
5. 개 강: 9월 4일

총 장: 류 종 길
명예총장: 이 정 근
이 사 장: 조 종 곤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광고 협찬: 엘에이지방회 (회장 김희창 목사), 엘에이동지방회 (회장 이만만 목사), 남서부지방회 (회장 김향수 목사), 남가주성결교회역사회 (회장 윤성길 목사), 미주성결대학교 동문회 (회장 권다원 목사), 사우스메이슨교회 (담임 조종곤 목사), 성문교회 (담임 김광수 목사), 시온교회 (담임 최경환 목사), 시가교성신교회 (담임 박성삼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문병용 목사), 임마누엘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한빛성결교회 (담임 차광일 목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인교회)



왈도 파의 신앙 파수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신앙을 지키겠다는 의지 때문에 포기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비헤 보통 사람은 신앙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자청년이나 데마처럼. 이태리의 북쪽 피아첸자(Piacenza)에 갔다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토리노(Turin)를 방문했다. 그곳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왈도파(Peter Waldo, 1170-이태리에서는 발테라

고 함)의 본부가 자리한 곳이다. 현재 작은 도시지만 옛날에는 산자락을 일구면서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저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그 자리를 옮기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왈도는 불란서 리옹에서 장사로 큰돈을 번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수사를 고용하여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었기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다. 일반인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1963년이었으니 무려 칠백년 전의 상황은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사람들은 사제가 말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는 정도였다. 그러기에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왈도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 당시로는

위험한 일이고, 잘못하다가는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불어로 번역된 사복음을 읽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그 때부터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되고 비록 교황의 말일지라도 인간의 말은 믿음의 매체가 될 수 없다고 간파했다.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도록 했다. 그는 모인 무리들을 성경에 명하신 것처럼 두 세 사람씩 짝을 지어 전도자로 파송했다. 실과 바늘, 머리띠, 여인의 장신구, 옷 핀 등등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팔아 연명하면서 복음을 전하

록 했다. 저들은 비즈니스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깊은 산골의 초라한 마을을 가가 호호 방문하여 물건을 팔았다. 그러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또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고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있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시작한 복음 운동이 세상을 불붙게 했다. 1270년에 시작한 복음운동, 그것은 돈도 없었고 조지도 없었다. 지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경께서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라 남 불교 스위스, 중부독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이태리까지 삼시간에 복음을 이루게 했다. 그 운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고,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들을 국가적으로 용인한 19세기 중반까지 이들은 내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들은 복음을 포기하는 대신 순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계속으로 흐르는 강물을 뺄것을 물들이는 인고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무려 6백년 동안 산속에서 투쟁하며 버텼다. 이들의 생활수칙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가정예배, 자주 모이는 집회로 영적 신앙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들이 모여 예배드렸던 바위굴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왈도파 장로님은 말한다. 그 옛날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불란서 언어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주일에는 불어로 강론을 듣고 있다고, 무려 60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온다고...이들이 과거 숨어 살았던 바위굴은 지금도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 웅변을 토하고 있다.

푸/ 른/ 초/ 장

주서택 목사
(청주 주님의교회)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 주님께 대한 믿음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너져 버린 믿음으로 인해 당장 이제 끼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몇 시간 전에 4천명을 먹고도 남은 기적을 본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출애굽시절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민 13:2에 보면 정탐보고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열 명의 정탐군은 거기서 본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했

이 결과는 참 두려운 것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14:21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갈단고... 보지 못할 것이라" 보이는 것만으로 정탐을 삼고 보이는 것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믿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걱정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시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찌 축복을 받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칼을 가십시오. 믿음의 칼, 신앙의 칼입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모든 사단을 격파하는 믿음의 칼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희망과 비전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바라볼 때 정치판이 엉망입니다. 사회의 이곳저곳에 인륜이 파괴됩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현실을 보이는 것만 말하고 해석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표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을 더해야 합니다. 사업장에도 예수님을 더해야 합니다. 자녀를 볼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 보십시오.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예수님을 더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법으로 써야 합니다. 취미생활에도 예수님을, 오락에도, 나의 재능에도, 내 가정에도, 내 건강에도 예수님을 더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뛰쳐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서 맘껏 헤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직시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 8:14-21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화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전진공공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17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 그리 둔하나?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믿노라하며 그리스도인이라 큰 소리 치면서도 염려와 근심에 파 물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염려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고 당장 내 손에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말씀과 연결된 막8:1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벌써 3일이 지나서 군중들은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습니

다. 이때 주님은 배고픔을 알고 먹

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그렇게 둔하나?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날 따르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현장의 주역이 나 이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너희 속에 염려와 근심이 짙찰 수가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이 광야에 굶주림에 지쳐있는 일만명의 사람들. 그리고 고작 보리떡 7개를 가지고 있는 초라한 현실을 넘어서 다른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현실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성숙

도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점 변화되어갑니다. 지금 당장 내게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하고 현실과 상황을 대체하며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 뒤로 주님의 손길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초현실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만 보다 보니가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믿음이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점점 그들의 믿음은 확고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흥분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정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고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며 밤새 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11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대로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은 갑갑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장관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보고했던 것

을 보고하셨던 것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 (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달일 조요한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임목사 (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호주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8월 20일 - 24일
강의제목: DI 808 Discerning God's Will(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일 시: 2012년 8월 27일 - 31일
강의제목: PM 853 Dynamics of Spiritual Growth(영적 성장의 원동력)

21세기 여성 지도력 개발 세미나

강사: 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일시: 8월 28일-29일 / 장소: 서드니 한우리 선교센터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I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학교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인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명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서 특혜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skoreanstudies@gmail.com

전/강/칼럼 (14)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성격장애 교우

2003년 5월초, 미동부 지역의 어느 미국 교단의 3박4일간의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주제로 강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의 강연 직후, 연세 있으신 한 남성 목사님께서 "경계성 성격 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를 가진 한 교인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고민을 털어 놓았어요. 너무 힘들어 3년 남은 은퇴만 기다린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 성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모함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판단이나 저주의 대상이 되어 신앙의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지나칠 정도의 경직성(Rigidity: 예, 타협불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주변인들을 짜증나게 하여 결국은 자신을 회피하게 하는 지경을 맞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 중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열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다양한 성격장애들의 증상들을 이해하면 교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는 기도(지유를 위한)의 방향과 더 나아가 교회나 각종 신앙모임에서 화평을 증진하는데 이익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특히, 우리에게도 장애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구요.

바라기는 이 글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정신병리학적이고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들에 근거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사랑(말씀)을 능가할 수 없음을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인에게도 성격장애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극심하지 않는 경우로 참고 바랍니다.

성격장애의 원인은 인간의 성장발달과정 중에 사회와 문화적 요구로 심리사회적 위기와 발달 과업을 직면하게 되는데, 건강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적 상처들을 많이 쌓아온 탓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여기서 건강한 해결은 '반드시 완벽하게'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의 비율이 더 많으면 그것으로 심리사회적 위기를 건강하게 해결했다고 보는데, 성격장애들은 이러한 건강한 해결의 부재로 인한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신뢰, 자율, 자신감 배양 및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친밀

감, 생산성, 통합성 등의 발달(에릭슨-Eric Erikson:1902-1994-의 심리발달 단계 참조) 과정에 부모나 주변인들로부터 적절한 사랑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성격이 온전하게 형성 혹은 발달하지 못한 경우들로 간주되어진답니다.

이들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같은 '사고장애'(Thought Disorder), 우울증(Major Depression)과 조울증(Bipolar Depression) 같은 '정서/감정 장애'(Emotional or Affective Disorder),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등과 같은 '불



안/공포 장애'(Anxiety Disorder) 등의 다른 정신 질환들과는 다음의 관점에서 구분이 됩니다.

성격 장애 증상들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과업(예: 경제, 학업 활동 등)에는 지장을 그치지 주지 않는 점에 비해 사고장애와 정서장애, 불안장애들은 심한 경우 현실적으로 자기 과업 수행이 힘들고 자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오늘은 편집성성격장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집성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계획된 요구나 위협으로 여겨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의 증상들을 갖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고 의심합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충성이나 신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를 꺼립니다. 보통 주변인의 악의 없는 언급이 연관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품위를 손상하는 또는 위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습니다. 즉, 모욕이나 상처 혹은 경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변인들의 악의 없는 실수(비고의적)의 자극적인 말을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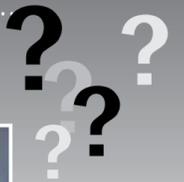
위의 증상들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사람은 믿지 못해도)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복받은 정상인이라면)을 통해 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우가 만약에 위의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인다면 더 따뜻함으로 대하면서 그분의 영적 성장(신뢰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들을 구함이 필요합니다. 그 분에 대한 함담에 동참하거나 그 분과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함은 금물입니다. 그분 앞에서든 아니든 인격(영성: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남)을 최대한 가시 없이 존중하시고, 만약에 직면(Confrontation)이 필요할 때는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지속적으로 하시되 '사랑의 돌봄'(Care)을 느낄 수 있도록 ...

참고로 집단 상담에서 한 환자가 '타인에 대한 일반적 불신'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고백하니, 위의 증상으로 고생하던 다른 환자들도 자기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그들 내의 '동질성'으로 인해서 '배타심'에서 '이타심'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신앙모임에서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나 고통의 치유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간접적으로 성격장애 교우들이 '동질성'으로 초대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치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사랑으로 성격장애 교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축하하고 감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 교우의 성격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사역의 시작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이고, 저희들에게는 믿음공동체의 치유와 화평을 통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성장이지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현재 임신 17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낙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낙태를 해도 되는지요? 현재의 임신된 태아를 성경적으로 인간이라 할 수 있는지요? -샌디에고에서 서 집사

A: 낙태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찬반의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혀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든 윤리적인 이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60만 명이 태어나지만 낙태로 사라지는 생명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오렌지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부부가 둘 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인이 원치 않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내는 자기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겠다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아내가 남편 허락없이 병원에 가서 낙태수술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니 얼마나 큰 싸움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낙태에 대한 견해는 2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낙태는 임신한 여성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에 맞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소위 선택권 우선론자(Pro-choice)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인 태아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생명권 우선론자(Pro-life)라고 합니다.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는 태아의 신분(Status)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아직 단순한 생명체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초기태아는 자기의식이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죽이는 행위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인간 생명 일뿐 인간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낙태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뇌가 조성이 되고 최소한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기준을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면 뇌의 생성기간인 8주-10주 이전 단계에서는 뇌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기 어렵기에 이때의 낙태는 윤리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태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모태에 형성된 새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인간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하던 못하던 태아의 사랑을 받는 생명의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139편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1절)/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으며(13절)/내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16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태어나기 전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에 동일한 인정대명사인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결론은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인간이 죽이는 행위이므로 죄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공유산은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당화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낙태 천국입니다. 낙태는 태아에 대한 경시현상과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낙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족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주셨을 때는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보호되어야 합니다.

담임목사 청빙

볼티모어 교회에서는 현 담임 목사님께서 3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어 기쁨의 안락과 보수신앙의 주철함 사명감을 가지고 여인 1세와 2세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며 선교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신실하게 목양하실 수 있는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요건
- 1. 미주 한인 대수교 장로회 소속(혹은 본 교단 가입 가능) 목사
- 2. 정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 이상 단독목회 경험에 있는 자
- 3.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 4. 이중 언어(한국어 및 영어)가 가능한 자
- 5. 연령: 40 ~ 55세

- 제출 서류
- 1. 한글 및 영문 자필 이력서(사진 포함)
- 2. 신앙 고백서 및 목회 계획서
- 3. 학위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 4. 설교 동영상 2 곡본 (6개월 이내 CD or DVD)
- 5. 목사님 추천서(3인 이상)
- 6. 목회 지역 교회추천 (1개월 분)
- 7. 목사본인 및 서모소서

■ 제출기한: 2012년 10월 30일 까지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중 택일바람
- 1)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Baltimore
P.O. Box 20190
Towson MD 21284
- 2) E-mail: application@kpcbmd.org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410-337-9448(교회) 410-661-3999(위원장)



1600 W. Seminary Ave. Lutherville, MD 21093
www.kpcbmd.org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겸손으로 봉역하실 전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주요사역: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
-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서 영어와 한국어 사역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신앙간증문,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목회자 추천서 2부 (참가건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기한: 2012년 9월 30일

○ 제출처: 버지니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담당: 서기 백원길 장로, 703-585-6355) Eld. Won Kil Paik 6355 Edsall Rd. Alexandria, VA 22304

○ 제출방법: 우편이나 이메일 wonpaik@hotmail.com
○ 교회주소: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2
○ 교회전화: 703-922-6064

버지니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민철기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 보냄
구독자 이름 (독자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_____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s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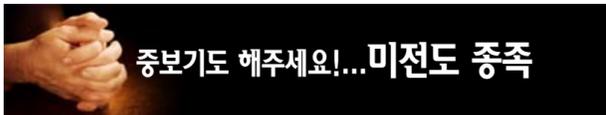
신청일수: 20년 유효 및 신청인 서명:

★ 저의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99, Fax: (323) 665-0646
E-mail: kcp@chpress.net

N.Y.: 143-17 Bunka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5-4400, Fax: (718) 885-0774
E-mail: sy@chpress.net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소(So)



소족은 태국과 라오스의 메콩강 유역을 따라 거주한다. 이 지역은 매우 조밀한 열대숲으로 덮인 거친 산악지역이다. 라오-타이어로 소(So, 큰형)라는 이름이 뜻하는 의미로 볼 때, 소족은 "아우"인 라오족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음을 할 수 있다. 소족은 가정에서는 소어(몬-크메어)를, 공식적으로는 라오어를 사용한다.

몬 크메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이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원후 초기 몇 세기에 걸쳐 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이들을 밀어냈다. 즉 약 400년전 쯤, 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소족을 그들의 고향에서 쫓아냈고 소족은 메콩강을 따라 재정착하게 된 것이다. 소족은 점차적으로 타이족과 라오족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였다. 근대에 들어서면

삶의 모습
라오스의 소족 사람들은 주로 농부들로 쌀, 과일, 야채 등과 같은 다양한 농작물들을 재배해서 판매하기도 한다. 소족은 주위의 다른 소수종족들보다 더 가난하며, 그런 까닭에 많은 물품과 서비스를 라오족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소족 마을 사람들은 고기와 야채를 훔치거나 소금과 같은 필수품과 교환하기 위해 타이족을 빈번히 만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족은 주위 종족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타이족과 라오족의 풍습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소

족의 문화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예로, 소족은 땅을 갈고 태워 개간지를 만드는 자신들의 전통적 농사법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타이족의 농사법을 따라 계단식 논에 쌀농사를 짓는다. 또한, 소족은 소를 키우며 라오족의 방법을 따라 토지를 경작한다. 땅에 농사를 짓기 전에 물소나 소가 끄는 쟁기로 땅을 갈아놓는다. 농사 이외에도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도 소족의 중요한 활동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전통의상, 언어, 교육법, 가옥, 공공행정까지도 상당히 변했다. 소족 여성들이 머리를 묶기 위해 실크 스카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지 몇몇 독특한 문화적 특징만이 보존되고 있다.

소족 사람들은 촌락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라고 여긴다. 각 촌락마다 수장이 지도력을

가지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지도력을 갖는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가정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신부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소족은 전형적으로 대나무 기둥 위에 대나무 집을 짓고 초가지붕을 얻은 소를 키우며 생활한다. 소족은 다소 더럽고 무질서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
기원전 329년에 태국에 처음으로 불교가 소개됐으며, 오늘날 소족의 70%가 자신이 불교도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통적인 정령숭배 사상이 혼합돼 있으며 종종 초자연적 영혼과 대상에게 도움을 구한다. 조상숭배 역시 소족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조상들의 영혼을 잘 달래지 않으면 이들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집 근처에는 조상

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작은 제단이 있다. 사람들은 또한 흙, 물, 불, 바람과 같은 자연 요소와 연관된 다양한 영혼들이 있으며 또한 각 마을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족이 사는 지역은 파괴력이 강한 홍수피해가 잦은 곳이다. 1996년 농작물 피해로 식량부족 현상을 겪었다. 식량 공급과 기본생산 구호품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사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베트남전 때 미국 전투기가 떨어뜨린 폭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들판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필요하다. 의료지원, 특별히 보철술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크리스천 의료선교사들이 소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집트 종교갈등 격화 교회 전소·유혈 사태

이집트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종교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카이로 인근의 피라미드 마을에서 다림질 실수로 옷감이 손상되면서 시비가 붙은 기독교인 세탁소 직원과 무슬림 손님 사이의 감정싸움이 발단이 됐다. 무슬림들은 세탁소 직원이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질렀고, 기독교인들은 지난 1일 대통령궁에서 "종교 탄압을 막아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5일 이집트 일간지 알아흐람에 따르면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최근 피라미드 마을인 기자지역에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사이에 벌어진 유혈사태를 지목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길 바란다"며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건은 법에 따라 종교적 편향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기자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120가정이 '세탁소 사건'으로 모두 집을 버리고 떠났으며 근본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이집트 콥틱교회 관계자는 AP통신을 통해 "이집트 곳곳에 분포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쫓겨나고 있는 신세"라고 주장했다.

무슬림들은 유혈 충돌로 무슬림 1명이 사망했다며 기독교인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집트 당국은 지난 3일 '세탁소 사건'으로 양측이 서로 화염병을 던졌으며, 무슬림 1명이 사망하고 진압하던 경찰 1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다. 기독교인들은 재산상 피해만을 입고 사망자는 없었다.

이집트는 지난해 '시민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한 후 무슬림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최근 종교적 편향이 심해질 수 있다는 논란에 빠졌다. 이집트는 인근 이슬람국가에 비해 종교적 갈등이 심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1월1일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예배 중 폭탄 테러가 발생, 24명이 사망했다. 이집트 기독교인은 1000만명으로 절대수는 많으나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아 소수다.

미국 국방부는 6일 워싱턴 주 밀워키의 한 시크교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와 관련, 과거 심리전 전문가로 복무했던 퇴역군인이라고 밝혔다.

미국방부는 이 용의자에 대해 웨이드 마이클 페이지(40)라고 확인했다. 그는 시크교 사원에 진입해 일일 예배와 식사를 준비 중이던 신자들에게 총을 난사해 6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미국방부는 이 용의자가 1992년 4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복무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에서 군 생활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의무를 요구한 한국방부 관계자는 페이지가 입대해 직후 호크 미사일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하다 심리전 병과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심리전 전문가들은 정보의 분석과 전달 등의 임무를 주로 한다.

인권단체인 '남부인권센터(SPLC)'는 페이지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을 이끌었던 '좌절한 신 나치주의자들'의 웹사이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0년 고향인 콜로라도를 떠나 음악현장에서 일했으며 2005년 '무관심을 끝내자(End Apathy)'라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을 시작했음을 알렸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페이지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영감이 일종의 좌절감 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으나 폭력행위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페이지가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연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크교 총기난사 용의자 "심리전 퇴역군인"

미국 국방부는 6일 워싱턴 주 밀워키의 한 시크교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와 관련, 과거 심리전 전문가로 복무했던 퇴역군인이라고 밝혔다.

미국방부는 이 용의자에 대해 웨이드 마이클 페이지(40)라고 확인했다. 그는 시크교 사원에 진입해 일일 예배와 식사를 준비 중이던 신자들에게 총을 난사해 6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미국방부는 이 용의자가 1992년 4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복무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에서 군 생활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의무를 요구한 한국방부 관계자는 페이지가 입대해 직후 호크 미사일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하다 심리전 병과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심리전 전문가들은 정보의 분석과 전달 등의 임무를 주로 한다.

인권단체인 '남부인권센터(SPLC)'는 페이지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을 이끌었던 '좌절한 신 나치주의자들'의 웹사이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0년 고향인 콜로라도를 떠나 음악현장에서 일했으며 2005년 '무관심을 끝내자(End Apathy)'라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을 시작했음을 알렸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페이지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영감이 일종의 좌절감 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으나 폭력행위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페이지가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연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지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영감이 일종의 좌절감 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으나 폭력행위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페이지가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연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한 교회, 슬집서 정기 예배 계획

[미선라이프] 뉴질랜드에 있는 한 개신교회에서 슬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지역 신문 오클랜드 나우가 31일 보도했다. 오클랜드 나우 보도에 따르면 알바니 쇼어의 포도원교회는 오는 5월 저녁 7시 알바니 스포츠 바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예배는 빅 프란시스 목사와 켈빈 컬버웰 목사가 맡는다.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를 사서 마실 수 있으며 감사기도와 피자 등의 안주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인들은 더 편한 장소에서 교회와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해왔다고 밝혔다.

켈빈 컬버웰 목사는 "우리는 앉아 있고,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게 사람들이 뉴질랜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며 "예수도 그런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이 사람을 가깝게 만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밝은 조명이 있고 큰 음악소리가 있는 교회 건물에 들어가려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턱을 넘어가야 하지만 슬집은 그렇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 프란시스 목사는 슬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나 찬송가는 없을 것이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배를 주관하는 빅 프란시스 목사와 켈빈 컬버웰 목사.

아프리카서 날아온 '잠미란 후원자님 파이팅'

"잠미란 후원자님, 올림픽에 출전하신다고 들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 경기를 지켜볼게요. 하나님께서 후원자님께 승리를 안겨주시길 기도할게요. 파이팅!"

역도 국가대표 잠미란 선수의 런던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11세의 아프리카 어린이 펠로(사진)가 보내온 응원 메시지가 펠로는 장 선수가 한국컴패션을 통해 1대1 결연한 아프리카 토고의 어린이, 장 선수는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펠로에게는 메달보다 값진 믿음을 보여줬다.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살고 있는 펠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 선수가 자신의 후원자란 사실을 평소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펠로는 컴패션의 100만 번째 후원 어린이로 한국의 장 선수와 인연을 맺었다. 장 선수는 당시 "100만 번째 어린이를 후원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선수는 2007년 한국컴패션 후원자인 탤런트 차인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잠미란 선수의 후원자 펠로.

표씨의 미니홈피를 통해 컴패션을 알게 된 뒤, 불리비아의 한 어린이와 처음 1대1 결연을 했다. 이어 2009년 5월 토고의 펠로, 2011년 1월 인도의 2명, 온두라스의 1명과 결연해 모두 5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장 선수는 메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물론 종종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 한 살배기까지...희망은 기도 뿐

미선라이프 인터넷 판이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내전으로 2만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소식을 현지 사역자를 통해 보도했다.

현장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시리아와 터키 국경의 작은 마을인 터키 남부 안타키아에서 평화의 기도를 올리는 장성호 목사는 7일 국민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반정부 세력으로 의심되면 정부군이 두 살도 안 된 어린이마저 사살해 버리는 비극이 벌어지자 수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국경을 넘어 안타키아로 들어왔다"며 "이들에게 현재의 실상을 들은 뒤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여 전 시리아 난민으로부터 충격적 현실을 전해들은 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교회의 정례기도회에서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그가 섬기는 '안디옥교회'는 개신교 교회로는 처음으로 터키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세워졌다. 2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을 잠시 지배했던 프랑스 정부의 은행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위한 평화기도는 종교와 종파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넘어섰다. 정 목사는 "안타키아 인구 2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속해 있는 이슬람교 시아의 알레위파이고, 나머지 절반 중 상당수는 시아와 원수지간인 수니파"라며 "이밖에 유대교, 기독교 등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시리아에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안타키아는 침수세기 전부터 다민족·다인종·다종교의 땅이었다. 지금도 터키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유대인과 기독교 아르메니아인 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시리아는 지난해 3월 19일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5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 계로만 2만여명이 사망하는 내전을 겪고 있다. 터키에는 4만5000여명의 시리아인이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소식을 현지 사역자를 통해 보도했다.

제11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2012년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 독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2명: 각\$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신청서는 본 교회 웹사이트(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2년 10월 19일
수여자 발표 2012년 12월 3일, 본 교회 웹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이나 팩스(847)359-840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NLChicago.org
NewLife@NLChicago.org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미국장로교 노스퓨젯사운드 노회 부총무 청빙

아름다운 시애틀 북부에 위치한 미국장로교 노스퓨젯사운드 노회는 급성장하는 한인교회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회 부총무를 청빙합니다.

업 무
1. 노회와 한인교회들과의 연락 업무 담당(Co-Liaison).
2. 노회 총무 감독하에 소속 교회와의 사역.
3. 한국어 사역, 영어권 사역의 교량 역할.

자 격
1. 목사(교육장로) 혹은 치리장로서 3년 이상 PCUSA 교회 사무 경력이 있는 분.
2. 목회자와 목회사역의 조인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분.
3.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분.

제 출 서 류
1. 교단 PIF (Personal Information Form).
2. 본인 사진 및 사역 비전서(영문).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노회 총무: Dr. Corey Schlosser-Hall
접 수 처: corey@npspresbyterians.net
연 락 처: 425.985.3787 / 425. 355.0922
1010 East Casino Road, Everett, WA 98203

청빙위원장 장윤기 목사
North Puget Sound Presbytery PC(USA)



특/별/기/고

이슬람국가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 교회지도자 양성(중)



노봉린 박사 (Concordia Seminary, Th.D.)

II. 이슬람국가(4 카테고리로 구분)에서의 교회지도자 양성

필자는 반 기독교적 핍박의 정도에 의해 57개 이슬람국을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기를 원한다. 각 카테고리에 속한 이슬람국의 기독교 핍박을 점검하고 각 상황에 적절한 교회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이슬람국가들

A. 테러와 핍박이 자주 일어나는 아랍국가들,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북나이지리아, 수단 등의 이슬람국에서 반기독교적 자살폭탄과 무기폭력을 사용하여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교회건물을 파괴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애급의 콥틱 오소독스 교회(Coptic Orthodox Church)를 중심으로 약12%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는 아랍권의 전 지역의 인구98% 이상을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월 1일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곳으로 알려진 애급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신년예배를 드리는 도중 무슬림 자살폭탄이 터져 23명 교인이 피살당했다(Christianity Today, March 2011, p.15). 카

이로의 한 기자는 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계속 존재하려면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없다"(Christianity Today, June 2012, p.48).

2009년 10월 31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Our Lady of Salvation Church(아시리안 천주교)에서 주일 아침 미사예배도 중 알카에다가 잠치한 폭탄이 터져 60명이 생명을 잃었다. 교인들

나이지리아는 1억6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최대국가이다. 기독교인의 수는 인구의 52%이며 대다수는 남부에 살고 있고 무슬림은 41%로 북부의 12개도에 거주하며 샤리아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쿠 하람 이슬람 테러단체는 종교 갈등으로 북부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교회건물을 파괴하였다. 기독교인 학살은 2001년 1000

단히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세아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연장신학교육(TEE)이 아랍권 교회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세아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TEE를 사용한 나라들이 많다. 특히 인도, 필리

7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사용한 연장신학교육(TEE) 시도 인터넷, DVD, 카세트, 예수영화 등 자료로 온라인 교육

은 두려워하여 크리스마스 행사를 전부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Star Advertiser, Dec. 23, 2010, p. A4). 2003년 이라크의 기독교인 수가 80만-150만이었지만 수만 명이 타국으로 도피하였다.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15교회 중 7개는 문을 닫았고 50만 명의 기독교인은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Mid Week, Nov. 17, 2010, p.10). 이외에도 수 없는 반 기독교적 테러가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교인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기를 두려워하는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

명, 2004년 700명, 2008년 300명, 2010년 1월 800명이 피살당했다(하와이크리스천신문, 2010년 3월 3일, p.2).

B. 위험지역에서의 교회지도자 양성

기독교인이 단적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려하려는 상황에서 소그룹이나 개인으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기 원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별히 흩어진 교인들을 가르치며 돌볼 수 있는 소수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

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교회들은 영문으로 많은 TEE자료를 출판하였다. 현재 중동지역과 아시아의 TEE사역을 연결시키는 단체 프로그램 TEE(PTEE)의 본부가 요르단의 수도인 아만에 있다. 연장평신도 신학교육에 사용되는 TEE자료를 네 개의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문맹인 레벨, 초등학교 레벨, 중등학교 레벨, 대학교 레벨로 분리되어 있어 다양한 아랍권 기독교인에 맞는 자료를 장만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21세기 신학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인터넷,

DVD, 카세트, 예수 영화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신도 신학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일반 교육도 온라인 교육을 널리 사용하여 학위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학교육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신학교육은 장거리(Distance) 교육을 강조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극동방송 같은 기독교방송을 통하여 종교자유가 없는 나라의 기독교인을 위한 제자훈련과 복음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반 기독교적법을 장만하는 이슬람국가들

A.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터키 중앙아시아에 7개의 Stan(국가)이 있다. Kazakhstan, Uzbekstan, Kyrgi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fghanistan, Pakistan은 이슬람국가로 외국선교사 활동을 제한하며 국내교회 활동을 억제하는 법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타 중

스탄 대통령에게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arachi에 사는 50,000명 무슬림들은 모독죄를 지지하는 데모를 하였다. Taceer 도지사는 결국 무슬림 테러에게 암살당했다(WORLD, Jan. 29, 2011, p. 34).

터키의 동부에 Malatya 도시에 2007년 4월 두 명 터키교회 지도자와 독일 선교사가 5명의 무슬림 테러에 의해 목을 베어 학살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터키정부의 반응은 무슬림 테러범죄자만 아니라 순교당한 교회지도자들까지도 정죄하는 판결을 내렸다(WORLD, May 5, 2007, p. 24).

B. 신학교와 TEE를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

이 지역의 반기독교 상황은 일반적으로 무슬림의 테러와 자살폭탄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핍박은 아니다. 교회가 아직도 활동하며 신학교까지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지도자를 다양으로 양육시켜야 한다.

신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학교육을 통하여 평신도 지도자양성을 위하여 TEE를 강화시켜야 한다. 신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회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목회자 양성은 시급한 문제이며 신학생들을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교육을 시켜 자국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평신도 신학교육 사역도 신학교를 중심으로 TEE제자훈련을 펼쳐야 하며 지 교회에서 TEE코스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서 평신도들이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TEE방법은 위험 때문에 지 교회에서 자주 모일 수 없는 중동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 DVD, 카세트, 예수영화 등을 사용하며 온라인 평신도 신학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Worldwide church directory advertisement for 서부(CA) 교회안내. Includes a large image of angels and a grid of 48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00. 25억 달러 프로젝트

올 8월 5일경, 전 세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한 뉴스를 듣게 될 것이다. 큐리오시티(Curiosity) 호 소식이다. 예산을 훌쩍 넘겨 25억달러가 들어간 NASA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를 실은 로켓이 지난 2011년 11월 26일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이번 달에 목적이인 화성에 도착할 예정이다. 목적은 화성에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이 있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살았던 혹은 살만한 환경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NASA는 예전에도 몇 차례 이같은 목적을 가지고 화성을 탐사하였다. 이미 1978년에 바이킹호를 보내 '생명체 존재 가능성 전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바이킹호는 1 세계급 피트의 상자에 4만개의 고성능 부품이 들어 있는 첨단 실험실이었다. 화성에 도착하여 정밀한 실험을 했는데 유기화합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 전무'라고 결론을 지었다.

NASA는 또 2004년에 한 대에 3억달러짜리라는 화성탐사선 2대(오퍼튜니티호와 스피리토)를 보냈다.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물이 있는지 생명의 기원에 답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NASA는 2008년에도 화성 탐사로봇 피닉스호를 보냈다. 미디어들은 그 성과를 이렇게 보도했다.

"유기물만 빼고는 지구의 보통 흙과 다름없다." 유기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체의 흔적이 없다는 말이다. 1978년 바이킹호가 내린 결론과 똑 같은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마치 생명체가 있거라고 하듯이 다음과 같이 소설을 썼다.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생명체가 있다면 이를 키울 영양분이 될 것 같은 성분이 발견됐다." "화성의 흙에는 지구 가정집 뒤뜰의 흙과 비슷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며 생명체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 어떤 유독 성분

도 없다." 이런 전력을 가진 NASA가 또다시 25억 달러나 되는 세금을 들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 것이다. 이 로보트에는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이 큐리오시티가 도착하면 마치 화성에

지구 밖 생물체 존재 탐구는 진화 확인하려는 것 창조자 제거는 제1심계명 제거로 가장 큰 죽을죄



화성 탐사 로버 Curiosity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동기와 목적은 진화론이다. 하나님 빼고 인류의 기원을 알아낼 수 있을까?

미생물(세균)이 살고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한 기사들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화성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건 사람이 진화된 동물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가 정말로 알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사람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Homo sapiens(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존재)라는 동물이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떠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수천년 연구한 결론인데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동물-생각하는 동물, 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 정치적인 동물, 말을 하는 동물, 포유동물, 영장류, 영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바로 진화론 교육 때문이다. 버클리 대학생들의 87%가 자기를 동물로 생각한다는 통계 자료(2005년)가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란 동물'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답을 찾으려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요즘은 진화론만 배우게 되니까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동물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다. 사람이 동물이라면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인생을 가장 잘사는 방법은 가장 동물적으로 사는 것이다.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후회하는 영국의 무신론자들은 버스에 이런 광고를 붙였다: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인생을 즐겨라." 그 열매들로 동성애, 마약, 폭

력, 성적인 타락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은 창조자를 제거해버리고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무서운 과학 철학이다(진화도 믿고 성경의 창조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신론자인 도킨스의 말을 빌리자면, 진화도 창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조자를 제거하는 것은 심계명의 제 1계명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화를 믿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짓는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화를 믿으면 자신이 저절로 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 진화를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

왜 NASA는 이런 프로젝트를 집요하게 수행하고 있을까? 이런 일들은 성경과 창조주 하나님 대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땅지 않을 것이다. NASA의 많은 프로젝트들은 산업적인 것이 아니라 진화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다. 화성이나 지구 밖에 생물체가 살았거나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지구에서의 진화를 시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성이나 우주 어느 한 곳에 있는 천체에서 미생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까? NASA는 지구 닮은 천체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비슷한 것만 찾으면 미디어들을 동원해 광고를 하고 있다. 미생물이 지구 밖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과학이 더 연구를 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해두자는 크리스천 과학자들도 있다. 혹시라도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 될까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러나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성경이다. 창세기 1장의 행간을 읽어 보면, 창조의 중심은 지구와 사람이다. 지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 하셨고 6일간 보기에 좋게 꾸민 곳이다. 심지어 바닷가의 모래알 수처럼 많은 별들도 지구에 빛을 비추어 사람이 보고 시간과 계절 가는 것을 알도록 창조

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지구 바깥에는 미생물도 있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과학이다. 절대 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면 생명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창조되어야 한다. 가장 작은 세포 한 개가 얼마나 복잡한가 하면, 500만 개의 부품이 조립된 보잉 747 비행기 200대를 압축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게 작은 세포 공간에 집어넣은 것과 같다. 비행기 부품이 저절로 생겨나고 조립되어 비행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절대로 스스로는 조립되어 생명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화성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는 스스로 진화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NASA는 절대법칙에 어긋난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이미 엄청난 공격 자금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 노력의 근거와 목표가 자연 법칙(사실)과 상반되는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결코 창조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북음장로교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의사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몸으로 말하기도 하고 눈으로도 표정으로도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고도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묵도 강한 긍정이든지 강한 부정인든지 의사를 드러내는 확실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과연 인간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약행 허가서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침묵이 실은 인간에게 임한 가장 큰 착각의 위기가 아닐까요?"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불로든 물로든 심판의 손을 드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듯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여 자신의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선택보다는 내 것을 쟁기기에 혈안이 된 이기주의의 선택이 생존경쟁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연적인 방식입니다. 내가 왕이니 너나없이 자존심의 거울림이 부추기는 대로 약한 마음을 따라가니 악이 관영합니다. 죄의 결과가 부른 괴로움 넘치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당장 벌이 안 떨어지지 양심이 마비되고 아예 대담해져 살인을 밥 먹듯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 악에 대담해져 극악무도 포악한 마귀형상을 그 안에 중반이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정욕을 따라 살며 일으키는 무수한 갈등들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배푸시는 자비의 기회이며 임할 심판의 경고입니다. 신자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차이가 있을까 냉정히 살펴봅시다. 아, 그런데 아찔합니다. 매일의 삶은 누구보다 더 세속적이나 주일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헌신하기에 스스로 믿음 좋은 이로 착각하는 의인들로 가득찬 현대 교회의 실상이니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무궁한 인내심으로 참고 입을 굳게 다무시고 애통케 하는 가증스런 위선자들로 가득차지요.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범의요" 들이대며 남을 비관하여 파당을 짓는 목소리 높이는 이들... 어려운 환경 탓으로 자신을 모두에게 받아야한다 고 대우받으려는 이들... 다른 이 형편은 아랑곳없고 자기 입장만 우기는 이들... 자신이 받은 것을 준 것으로 착각해 구해주시 내 보따리 내 놓라는 이들... 작은 칭찬에 부풀어 마귀 통로에 대면열어 놓는 공치사쟁이들... 교회 직분을 세상 벼슬로 착각해 교회 대소사를 주관하려 힘주는 직분자들...

하나님의 뜻은 관심조차 없고 조금 기도하다가 원하는 것이 안보이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속단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 품기도 합니다. 허나 절망하고 열불을 내고 넘어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야말로 악에 치우쳐 본인만 망가질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질것이 아닙니다. 원통하여 쌓은 악으로 인해 악한 일들이 내게 쏟아지면 정말로 억울하지 않나요? 백해무익한 자존심계명 내려놓고 악매기 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타자의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 그 분께 억울한 사연 다 쏟아놓고 내 죄짐을 벗기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찌르고 모두를 죽이고 지옥의 상태에서 괴로움 가운데 동물이하로 타락한 내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에서 몸부림을 합니다. 생의 바닥에서 스스로를 보며 절망하고 죽음을 택하던지, 인간답게 살고픈 진솔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와 생명 길을 택하든지 갈길길에 서게 됩니다.

스스로 자초한 극한 상황 가운데 "피투성이라도 살라"(겔16:6)고 하나님이 오늘도 무언으로 우리를 애절하게 부르십니다. 과연 내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억울하다 고소하던 마음이 잠잠해지면 주님이 굳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도록 기막힌 모습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보이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크게 들리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덴버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7-8263, Fax: (303)427-8052 7733 Kipling St, Arvada, CO 80006	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목요기도회: 오후 8:00 Tel: (703)222-0821, Fax: (703)222-0826 2820 Morris Ave, Landover, PA 19648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0:15(영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영국) 수요기도회: 오후 8:00 Tel: (714)482-1612, Fax: (714)482-1596 1530 Woodbine Rd, Levittown, PA 19057	맨얼교회 담임목사: 정용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11:45 [단체]: 오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8:00(월-목) Tel: (410)429-0226, Fax: (410)429-0223 2136 St. An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완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대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8:00 목회자: 오전 1:30 목회자: 오후 11:00 목회자: 오후 11:00 Tel: (302)429-6479, Fax: (302)429-6487 7 Main St, Hagerstown, MD 2174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요기도회: 오후 7:00 Tel: (410)327-3448, Fax: (410)327-3449 17000 Bessie Key Ave, Hunt, Luthersville, MD 2104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11:00 Tel: (704)542-0900, Fax: (704)542-0909 701 Scaleworks Blv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영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301)429-5281 8007 Pecan Ave, Ft. Detrick, MD 21740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월-목) 목요기도회: 오후 8:30 Tel: (206)327-0261, Fax: (206)327-0266 4045 W. 52nd St, Seattle, WA 98148	시카고에브레교회 담임목사: 김진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8:00 Tel: (847)394-8234, Fax: (847)394-8279 877 Woodstock Rd, Prospect Heights, IL 60070	알라바마 재지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후 4: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월-목) 목요기도회: 오후 8:00(월-목) Tel: (205)929-8028, Fax: (205)929-8179 805 Kirby Rd, Live Oak, AL 37011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목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7)344-6443, Fax: (307)344-6187 2229 Greenwood St, Anch, AK 99518	앨파스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영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영국) 수요예배: 오후 7:00 Tel: (301)913-9480, Fax: (301)913-9285 3218 Arise Ave, Ellicott City, MD 21043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8:00 Tel: (713)542-0288, Fax: (713)542-0277 710 Wheeler Rd, Houston, TX 77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목요예배: 오후 8:00 Tel: (281)434-8703, Fax: (281)434-8823 208 W. 8th St, Abilene, TX 79602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영국)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202)347-4447, Fax: (202)347-4448 4813 Marlboro Rd, Alexandria, VA 223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원창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오후 8:00 Tel: (804)339-7000, Fax: (804)339-7514 10201 Robison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목회자: 오전 8:30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301)269-0316, Fax: (301)269-0323 3264 Corporate Center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목회자: 오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253)939-1998 748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타코마사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영국) 수요예배: 오후 7:00(영국) 목회자: 오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253)935-6217, Fax: (253)935-6224 8702 E. B. St, Tacoma, WA 9844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오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253)939-8975, Fax: (253)939-8976 8424 E. Yukon Ave, Tacoma, WA 98444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영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목요기도회: 오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480)728-0115, Fax: (480)667-3827 1920 E. Stovall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진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45 목회자: 오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860)649-4738, Fax: (860)649-4665 35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	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목회자: 오전 8:3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808)735-0911 152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5	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목회자: 오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803)729-7004, Fax: (803)729-6282 1063 5th Ave, Florence, SC 29503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월-목) 목회자: 오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808)777-2536, Fax: (808)777-8422 1367 E. Bartolotta Rd, Hanalei, HI 96712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목회자: 오전 8:00(월-목) 목회자: 오후 8:00(월-목) Tel: (808)947-4282, Fax: (808)947-4187 2122 Makiki Rd, Honolulu, HI 96822	

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볼티모어교회(담임 이영섭 목사)가 담임목사 은퇴로 새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혹은 본 교단 가입 가능) 목사로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단독목회 경험이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로 이중언어가 가능한 40-55세. 제출서류는 한영문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신앙고백서 및 목회계획서, 학위증명서 및 안수증명서, 설교 동영상 2회분(6개월 이내 CD or DVD), 목사추천서(3인 이상), 최근 사역 교회주보(1개월 분), 목사본인 및 사모소개서. 제출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며 우편(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Baltimore/P.O. Box 20190/Towson MD 21284)이나 이메일(application@kpcbmd.org)로 하면 된다.

▲문의: (410)337-9448(교회) (410)661-3999(청빙위원장)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버지니아장로교회(담임 민철기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주요사역은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으로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중언어 사역이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신앙간증문,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목회자 추천서 2부 (설기던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를 보내면 된다. 서류 제출기한은 9월 30일. 이메일 wonpaik@hotmail.com

▲문의: (703)585-6355 백원길 청빙위원장

이노비 베네티 콘서트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 베네티 콘서트가 9월 8일(토) 7시 맨해튼 첼시(Chelsea)에 있는 하이라인 로프트(Highline Loft)에서 개최된다. 클래식 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이노비는 앙르와 장에인단체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무료 공연을 갖고 있다.

▲문의: (212)239-4438

교역자 청빙

참사교회(담임 은희곤 목사)에서 풀타임 교역자(부목사, 전도사)를 청빙한다. 사역분야는 교회행정과 교회학교이며 자격은 정규 감리교 계통 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에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력서(사진 포함)와 자기소개서(신앙관 포함) 및 간단한 가족소개, 추천서(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가 필요하다. 서류는 이메일(pastor.eun@gmail.com)로만 접수할 수 있다.

▲문의: (516)485-2102

뮤지컬 '소돔과 고모라' 공연

뮤지컬 '소돔과 고모라'가 오는 17일(금)부터 사흘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한국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의 창작 뮤지컬로 구약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를 각색한 것이다. 금, 토요일은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5시에 공연한다.

▲문의: (718)321-7800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새회장에 방지각 목사

2012년도 총회, 총무 신현택 목사 서기 김원기 목사

2012년도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총회기 지난 1일 열려 신입회장에 방지각 목사(사진)가 선임됐다. 김해중 회장의 사퇴로 시작된 회무에서 증경회장단은 방지각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총무는 신

현택 목사가 유임되고 서기에는 김원기 직전 교협회장이 선임됐다. 방 목사는 "뉴욕교협은 전 미주에서 가장 모범된 교협이었으며 지난해에 잡음이 있었지만 잘 수습되고 있다"고 말하고 "증경회장단은 교

협이 잘되도록 후원하는 게 임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신현택 목사 사퇴로 방지각 목사 기도, 김해중 회장이 말씀("만남의 신비", 살전 5:11-18)을 전했다며 박희소 목사



의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아 해외아동후원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아동결연, 영혼과 육신 모두 살린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 '해외아동결연 후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가 주최한 '해외 아동결연 후원의 밤'이 지난 3일 저녁 새천년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기아대책 홍보대사 김정화 텔런트/영화배우가 특별출연해 아동결연에 대해 소개하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의 밤은 전회수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임병남 목사, 기아대책기구 소개 동영상, 기아대책 보고 정정섭 회장, 특송 정세라 미동부기아대책 홍보대사, 홍보 동영상, 현장방문 간증 김정화 홍보대사, 현금 필그림선교무용단, 인사말 광고 박진하 목사, 축도 황영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정섭 회장은 "지구촌에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은 1971년 시작돼 현재 전 세계 60여개국에 521명의 기아봉사단이 개발사업과 긴급구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기아대책은 1989년 시작

돼 한국 뿐 아니라 북한지원사업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화 자매는 2008년 우간다를 방문해 에이즈에 걸린 6살짜리 아그네스를 입양해서 지난 3년 동안 후원하고 지난 5월 다시 방문해 만난 것 등에 대해 간증했다. 김정화는 5일 동안 함께 살면서 얼마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돌아오고 난후 생각해보니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서 받았다고 감격해 했다.

김 자매는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의 모습을 설명하며 아동결연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일이라며 후원을 호소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은 2007년 뉴욕에서 설립돼 해외아동결연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현재 주 대상지역은 컬럼비아와 페루이다.

(유원정 기자)

희망의 노래...16일 뉴욕공연 마지막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미동부 순회공연

월드비전선명회 합창단이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라는 주제로 갖는 2012 전미주 순회공연의 마지막공연을 16일 뉴욕에서 하게 된다.

지난 1일 월드비전 뉴욕지부(운영위원장 방지각 목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동 합창단 공연 홍보를 당

부했다. 뉴욕운영위는 "2년마다 갖는 순회공연이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열리는데, 이번 뉴욕공연은 전도 차원에서 교회 밖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민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 동포사회를 푸근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위로와 격려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공연은 8월 16일(목) 오후 8시 뉴욕장로교회 △뉴저지는 15일(수) 오후 8시 아롤리언합감리교회 △펜실베이니아는 14일(화) 오후 8시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메릴랜드는 12일(주) 오후 7시 벨앨 교회 △버지니아는 11일(토) 오후 7시30분 엠마오연합감리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공연은 무료이다. (유원정 기자)

홈리스들의 쉼터 '뉴욕나눔의집' 이전예배

홈리스들의 쉼터 뉴욕나눔의집이 플러싱 148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난 5일 최근 이전감사에 배를 드렸다.

예배는 박성원 목사(지도목사, 뉴욕 풍성한교회 담임)의 사회로 박진호 전도사(보스톤한인장로교회) 찬양 인도, 박진하 목사(미동부기아대책 사무총장) 대표기도, 최재복 장로(이사) 성경봉독, 강영진 전도사(찬양사역자) 특송, 민학근 목사(정주새소망선교회) 설교, 김바울 목사(은혜가득한교회) 헌금기도, 필그림선교무용단 축하무대, 황영진 목사(낙원장로교회) 축사, 문석진 목사(KCBN 사장대행) 축사, 김희복 목사(뉴욕목사회 총무) 축사, 박희소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격려사, 박성원 목사 광고, 정도인 목사(뉴욕목사회 증경회장) 축도, 양승호 목사(뉴욕교협회장) 만찬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는 '사형수에서 희망 전도사'로 한국에서 활발히 사역하는 민학근 목사가 맡았다. 민학근 목사는 "1990년도 1월에 사형을 구형받았다. 죽음과 삶은 엄청난 차이다. 사형을 선고받으니 정신적으로는 전기에 감전된 충격보다 더 컸고 눈만 감으면 기절할 것만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 회심했던 순간에 대해서도 "사형수가 됐을 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면 삶의 근본을 모두 고치겠다고 기도했다. 독방이 0.7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했고 죄수들이나 간수들은 내가 독방 생활하다가 미쳤다고 할 정도였다"며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인상이 더럽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담았을 때 사람들은 제 얼굴이 은혜롭다고 한다. 전과자에서 전도자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민목사는 "나눔의집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일"이라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혼구원에 힘쓰라"고 전했다.

뉴욕나눔의집은 평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말은 오전6시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운영된다. 무선인터넷, 휴식공간, 커피와 간단한 식사 등이 제공되며 소셜시큐리티, 법률, 정신과, 건강, 신앙 등의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새 주소는 148-01 34Ave, Flushing, NY 11354이며 전화번호는 (718)683-8884(박성원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이전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월드비전 뉴욕지부 운영위원장, 왼쪽부터 김수선 장로, 이문웅 집사, 김중현 장로, 방지각 목사, 심장우 장로, 김윤정 디렉터.

JoyLA.com

Frelle 기존의 어떤 샷리기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샷리기 혁명!!

프렐 마이크로버블 샷리기

아직도 일반 물로 샷리 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이 샷리나 목욕할때마다 세균의 복귀수를 계속 낮게 하시겠습니까?

드라마 로얄패밀리에 소개
선물적 인기를 얻은 제품

마이크로버블이란?
마이크로버블이 물 0.05mm 이하의 크기에 포를 알립니다. 마이크로 버블 수는 피부표면 거칠기에 도를 주고 피부표면, 세포표면에 효과가 있으며 우수한 살균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염색은 탈색 및 윤곽효과로 신선한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물로 느껴지는 마이크로 버블효과

1. 나이프신부, 피부적염증 완화(20일후)
2. 나이프신부, 피부 거칠기 - 완, 니프신, 노인성(20일후)
3. 미모개선, 피부 거칠기 완화(20일후)
4. 얼굴의 기쁨과 활력(20일후)
5. 피부가 부드러워진다(20일후)
6. 미모개선, 피부 거칠기 완화(20일후)
7. 여성 피부사해 및 비염과 효과(20일후)
8. 입지, 입 - 입이 건조, 습기, 아제, 과일 등 사용과 99.9% (20일)
9. 지나고있어 냄새 제거 및 피부의 활력(20일후)

아토피 피부염도 완화 및 가려움 제거
여드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됨

여드름 피부노폐물 제거 및 가려움 개선,
피부표면도 향상으로 인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됨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 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스트롱 원어코드

NEW 성구사전

개역개정판

360,000점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New Bible Strong's Concordance

로고스 STRONG CORD

히브리어·헬라이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개역개정판

로고스 NEW 성경사전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리어를 정기간,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어려운 단어를 구별하며 대조하며 명기함, 단어를 스트롱즈를 찾아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현재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비즈니스 전문인 한국선교 개발전략

제1회 GMAN선교 포럼, 남가주선교협 플러선대원 공동

제1회 GMAN선교포럼이 '30년 한국선교진단과 비즈니스선교 및 전문인선교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오렌지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한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1회 GMAN선교포럼이 플러튼 소재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은 개회예배에서 선미니스트리의 국악팀의 특별수서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플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박기호 교수(플러선교대학원교수-전 필리핀선교사, AMA회장)가 '성서와 한국초대교회 선교 역사 속에 나타난 비즈니스선교, 전문인선교 전략과 영향력' △임종표 선교사(캐나, 한동대교수, EMA대표, 동중부아프리카 1호 선교사)가 '현장선교사가 보는 한국선교의 비즈니스선교 운동흐름에 대한 진단과 제안' △이재환 선교사(COME 대표, 전 캄보디아선교사, 초기 서부아프리카 선교사)가 '서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본 미전도종족 선교에서의 전문인선교 진단과 제안' △김종국 선교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장로신학대학원 총장)가 '동남아 이슬람권에서의 비즈니스선교의 기회 및 효율성 진단과 제안' △조용중 선교사(전 필리핀선교사, 전 GP국제대표, GNMS 대표, 동서선교연구원장)가 제 3세계 선교

운동에서 보는 전문인선교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둘째 날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김필립 장로(미국, 제3세계 식량개발전문가, 영양실조되치 전문가), 이규현 집사(캐나다, NTS Research & Inc 대표, 재캐나다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 UC Davis, Canada health plant와 협력 인체부해 획기적 유기농농약 개발, 천연HIV/AIDS, Cancer치유 대체물질 개발), 폴 유 선교사(필리핀, 한의사, 목사, 학교사역,

LA: 전인치유훈련원)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인도했으며 셋째 날에는 비즈니스 선교사들의 사례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잠금주선교사(키르기스스탄 우니콰대학 총장, GBN국제대표), 최국환 집사(미국, 의류업, 미주 16개주 60개 점포 및 해외지점), Brian Y. Chun 장로(미국, 건축설계 및 시공, 철강업)가 강사로 나서 강연했다.

김정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행사는 선미니스트리의 국악팀의 공연, 남가주선교단체 협의회 회원 소개, 그리고 이번포럼에 참가한 선교사들의 소개로 이어졌다. 이어 박기호 교수가 주제 강연을 했다. 박 교수는 다니엘 6:25-27을 중심으로 강의를 인도하며 "회교권과 한두 권 및 공산권에서 선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신변문

제로 인해 주눅이 들고 위축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선교는 매우 어려워 보이나 다니엘과 요셉의 예를 볼 때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호 교수는 "다니엘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느브갓네살과 다리오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다리오왕은 법령을 만들어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창의적 접근지역의 선교를 힘쓰는 모두에게 도전과 자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엘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적도 없었고 단지 전쟁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한결같은 믿음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됐다"고 설명하며 비즈니스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할뿐만 아니라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교회에서 모범적이지만 회사에서 모범적이지 못한 것이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질을 알지 못한다. 크리스천들 사업가들은 깨끗하게 비즈니스 해야 한다. 뇌물과 탈세는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들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고 각자 하는 일에 탁월한 자들이 돼 하나님 쓰시기 부족함 없이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 열린 새생명축제 행북한 동행(3) 부흥회에서 최홍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잘하는 것"

남가주주님의교회 새생명축제, 강사 최홍주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3일부터 5일까지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새생명축제를 개최했다.

첫째 날 '나를 사랑하는 주님'(시 37:23-2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최홍주 목사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누구나 승리하고 잘되는 마음은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결정적인 궁극적인 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한 것은 운명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인생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성경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인생의 실패까지도 함께하신다. 인생의 실패는 괴로운 것이지만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다. 그 신앙의 유산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 말하며 "요즘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 예전엔 금식 철야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그러나 새벽기도회 때 5분 이상 기도를 하는 자들이 드물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없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열매를 따먹으며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LA언약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후 본교회 당회원들이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다

LA언약교회 설립6주년 감사예배

LA언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는 교회설립 6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5일 오전 11시 2부 예배시간에 가졌다.

이날 예배는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소상낙 장로의 기도, 이자수아 집사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고귀남 목사는 '다윗의 삶'(대상29:26-30)이라는 제목의 교를 통해 "다윗의 삶의 여정은 첫째 다스리는 자의 삶, 둘째 장수하는 자의 삶, 셋째 부한 자의 삶, 넷째 존귀한 자의 삶, 다섯째 영욕 간으로 유산을 물려준 삶, 여섯째 멘토의 지시를 받

는 삶이었다"고 설명하며 "설립 6주년을 맞이해 우리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향기를 맡고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LA언약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06년에 설립됐다. 주일 예배시간은 1부 오전 8시30분, 2부 11시이다.

▲문의: (213)820-0003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복음장로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복음장로교회(담임 김상덕목사)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8월12일 오전 11시 감사예배와 오후 7시30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란 주제로 찬양제를 갖는다. 또한 오는 9월 15일(토)에는 우리 조국 한국전(1950.6.25)에서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을 초대하여 섬기는 기회도 준비한다.
▲문의: (562)694-6214

거룩성회복운동(NSM) 세미나

거룩한 세상을 꿈꾸며 거룩성 회복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New Spirit Movement(상임대표: 박용덕 목사)는 8월 20일과 21일 홀리톤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무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각 교회 담임목사 및 담임목사 부부 선착순 50명으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주부와 100달러 수표를 보내 등록하면 되고 수표는 컨퍼런스 폐회 후에 다시 본인에게 되돌려준다. ydp2024@yahoo.co.kr / williamwooramlee@yahoo.co.kr
▲문의: (714)401-9874, (909)276-0011

미주성결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모집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목사)에서 신학사(B.th), 대학원 목회학 석사,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8월 20일까지이며 개강은 9월 4일. 입학서류는 웹(www.aeu.org)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323)643-0301

뉴라이프교회 장학생모집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춘원 목사)에서 제 11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 현재 신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재학생, 목회자 자녀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GPA B+이상이어야 함. 참조 www.nlchicago.org
▲문의: scholarship@nichicago.org/ 팩스 (847)359-8409

마더테스개혁신학대학 가을학기 학생모집

마더테스개혁신학대학/대학원에서 2012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학위취득과정 및 야간, 통신, 인터넷 학생모집 학과는 대학교 과정은(4년) 신학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음악학사이며 대학원과정은 3년, 박사과정 2년이다. 자세한 것은 www.mrtsusa.org 에서 볼 수 있다.
▲문의: (323)622-8376/428-7878

갯스비전교회 성전 이전감사예배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도 함께 열어

갯스비전교회(담임 임금빈 목사)는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지난달 22일 오후4시에 가졌다.

이날 예배는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임금빈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 퍼시픽대학교 한인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가 '수군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이날 예배에

서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도 함께 열렸는데 석종욱 집사와 석은순 집사를 안수집사와 권사로 각각 임직했다.

갯스비전교회의 새 예배처소는 11507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이며 주일예배는 1부 오전 10시 2부 11시30분이다.
▲문의: (714)331-8919



갯스비전교회 성전 이전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마친후 순서말은 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ew Spirit Movement 컨퍼런스

주제 :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신23:14)

깨어 있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2012년 8월 20일(월) 오후1시 - 21일(화) 오후 4시 30분
- 장 소: Howard Johnson Hotel & Conference Center
222. W Houston Ave. Fullerton, CA 92832 (714)222-8415
- 초청대상: 선착순 50명 각 교회 담임목사 및 담임목사 부부
[부부는 12 가정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특 해: 1박 2일 무료 숙식 제공 & 교재 제공, 선물

[연락전화 및 이메일]

(상임대표 박용덕목사) 714-401-9874 or ydp2024@yahoo.co.kr
(사무총장 이윤수목사) 909-276-0011 williamwooramlee@yahoo.co.kr
참고: http://cafe.daum.net/newspiritmovement

●참가신청 방법: 시무하고 있는 교회 주부 1장과 \$100 수표 한 장.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도 \$100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표는 컨퍼런스 폐회 예배 후에 다시 본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단, 참석하지 않은 분의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고 컨퍼런스 경비로 지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텔에서 주무시지 않을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보내실곳] : New Spirit Movement
1201 S. Beach Blvd#110
La Habra, Ca 90631

강사 : 송정명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박성규목사(주님세운교회담임) 이상명목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 총장) 김태호목사(TVNEXT.org대표) 사라김사모(TVNEXT.org 공동대표) 장인환선교사(선교사의 친구들 대표) 이완재교수(퓨리안개혁신학연구원총장) 임혜빈 KCCC회장 이흥목목사(에베소바이블하우스원장) 신종은목사(OC한인목사회 회장) 성성용목사(새생명교회담임) 박용덕목사(남가주빛나리교회) 이윤수목사(한국인선교회 미주대표) 조효성목사(한류선교프러젝션대표) 손민호목사(좋은이웃청소년교회담임)

주최: New Spirit Movement (상임대표 박용덕목사)

선교열정 불 뿜는 기독교청년들

"미션 코리아"... '선교한국 2012대회'

[미션라이프]경기도 안산시 차세대 세계선교를 책임질 청년들로 북적이고 있다. '선교한국 2012대회'에 참석한 3000여명의 20·30대 기독교청년들 때문이다.

1일 찾아가 안산 동산교회(김인중 목사) 본당은 선교 헌신자들로 만석이었다. 주강사로 나선 조지 머레이 미국 컬럼비아국제대 명예총장은 복음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전했다. 그것은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였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독선적이라며 그렇게도 몰 타기를 시도하는 그 길을 의미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종교도 교회도 선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

나 전 세계 인구 10명 중 9명이 예수님을 모르며 3분의 1은 복음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주권에 복종해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한국은 1988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한국교회의 선교축제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한국기독교학생회(IVF), 한국내비게이션선교회, 예수전도단(YWAM), 성경번역선교회(GBT), 한국OM국제선교회, 바울선교회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단체 39개가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참석자들의 선교 열정도 남다르다. 신앙 좋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청년들 중 상위 1%를 모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교한국은 선교단체 박람회였다. 안산동산교회 1190㎡(360평)의 열린지에는 32개, 공의교회에 21개 선교단체의 홍보부스가 설치돼 있다. 선교 헌신자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기업체용 박람회를 방불케 했다. 브로슈어와 홍보영상을 준비한 곳이 많았다. 불판과 염서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선교지 민족의상을 내걸어 분위기를 한껏 낸 곳도 있었다.

중국 서부지역 선교를 펼치는 이투선교회 송요셉(53) 대표는 "선교회가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부스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지만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

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한다. 세계선교를 책임질 이들을 보니 정말 흥분된다"고 말했다. 윤술지(28·여)씨는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전화문의로는 선교단체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직접 방문해보니 금방 이해가 되고 선교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눈에 보인다"며 활짝 웃었다.

49개 주제 강의와 400개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선교한국 대회는 오는 4일까지 열렸다. 선교한국2012 조직위원회는 선교헌신자에게 구체적인 선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선교헌신자 세미나를 10·1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missionkorea.org). 주회 측은 12회 대회까지 5만3600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3만1000명이 타문화권 선교에 헌신했다고 밝혔다.

"거듭나는 감리교"...감독회장 4명 출사표

김승현, 김충식, 이복규, 함영환 목사, 감독후보 총18명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임시감독회장 김기택)는 31일 기감 감독회장 및 감독을 뽑기 위한 후보등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감독회장에는 김승현(성일교회), 김충식(서울연합교회), 이복규(전전교회), 함영환(분당새로교회) 목사(가나다순)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미주연회를 제외하고 10개 연회 감독 후보에는 김영현(서울연회) 목사 등 총 18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 세종로 감리회관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려냈다. 일부 접수자는 서류미비 등으로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출마 여부를 두고 교단 안팎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김국도(임마누엘 교회) 목사는 감독회장이 아닌 감독(서울남연회)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감독회장 후보자들은 지난 4년 동안 파행으로 치달았던 '감리교 사태'를 극복하지는 마음으로 출마를 했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김승현 후보는 "감리교가 아픈 상처를 감싸고 거듭나야 할 때가 됐다"며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교단으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독회장 선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충식 후보는 "통합·개혁·부흥이라는 가치를 품고 나섰다"며 "감리교가 바꾸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성운동을 강하게 일으켜 바로 세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복규 후보는 "상식을 벗어날 수 없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어서"라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함영환 후보는 "감리교 사태가 완전히 정상화 되도록 각종 제도를 고칠 것"이라며 "영적 대각성을 통해 실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찾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개진 감리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감독회장 후보가 최종 4명으로 결정되던 후보단일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정책선거 대신 학연과 편가르기 등과 같은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단 일각에서는 후보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난 30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후보 등록기간에 제기됐다.

감리교 분부 관계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나누어졌던 감리교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단 선거가 세상의 것과는 구별될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기감 총회는 1일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기호를 추첨할 예정이다.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는 10월 4일 열린다. 제29회 총회는 10월 말 개최된다.

'신천지 OUT' 14만4천명만 영생 얻는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CBS신천지 특별기획 보도

[CBS]CBS는 이단 세력인 신천지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이단 척결 노력의 하나로 오늘부터 매주 한 차례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특별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신천지가 구원받을 성도라고 주장하는 14만4천 명에 대해 성경을 어떻게 왜곡한 것인지 짚어봤다.

14만4천이란 숫자는 안상홍종인회·영생교·JMS 등 여러 이단 세력들이 자신들만을 특별한 존재로 여

기는 데 활용해 온 숫자다. 신천지 또한 마지막 때에 14만4천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에서 순교자 14만4천명의 영이 내려와 땅에 있는 14만4천명의 사람들에게 들어가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이단들이 그렇듯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왜곡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14만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숫자로 이스라엘의 열 두 지

파에서 각각 1만2천명씩을 계산해 합한 숫자다. 이는 사도요한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군대식 편제로 표현했다는 게 정통 교회에 속한 신학자들의 해석이다.

박형택 목사(예장합신 이단상담연구소장)는 "구약적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까 생각하다 12지파 1만2천명씩 14만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라며 "군대적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4천명만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구원이 숫자적으로

14만4천명으로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14만4천명은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표현한 것이라 설명했다. 14만4천명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전도의 목표로 삼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천지 탈퇴자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는 14만4천명이 채워진 이후 신도가 된 사람들을 '원무리'라고 지칭하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만4천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리를 스스로 바꾸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종자연 종교차별 조사 용역 취소하라"

교계 시민단체, 인권위 앞 릴레이 1인 시위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 5월 종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체결한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계약의 취소를 촉구하기 위한 시위다. 예스21기도운동과 밝은인터넷, 기독교민중연대 등이 벌이고 있는 이 시위는 지난 달 17일부터 매일(토·일 제외)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종자연과의 계약을 취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방침이다.

2일 낮 시위에 나선 김정아(50)씨는 "인권위는 교계의 항의에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해야 할 인권위가 특정종교 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은 부당하고 지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옥희(64)씨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종자연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경을 통해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에도 종교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국가

기관으로부터 종교차별조사 용역을 따낸 것은 양심과 규범을 저버린 행위"라면서 "인권위가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불교단체에 의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계약이자 종교편향적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미래목회포럼, 한국교

회연합회,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 기성 기장 기침 등 5개 단체 6개 단위로 구성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는 인권위와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종자연 관련 정보 공개청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소집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동참을 요청했다.

'소모적 이단논쟁 중지' 합의

한기총-한교연, 공동 서명 합의서 공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이 상호비방과 소모적인 이단 논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기총은 6일 홍재철 목사와 김요셉 목사, 종재자인 기독교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가 함께 서명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교연은 홍목사의 이단 연루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 한기총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기

총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예보)보낸 공문에서 한교연을 '김용민(나는 품수다' 진행자)과 같은 집단이라고 표현한 것과 언론을 통해 한교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목사와 한교연 바른 신앙수호위원장 정근두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도 취하기로 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합의서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서 서로 협력하며, 상호비방 및 소모적이고 무모한 이단 논쟁을 중지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아름다운 '노메달' 장미란 선수의 신앙

그녀는 한결같았다. 메달을 땀 때, 따지 못하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에는 성원해 준 관중에게도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역도 경기에서 장미란(29) 선수는 4위를 기록하며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하지만 경기를 지켜본 이들에게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크리스천들에게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려주어 줬다.

경기가 열렸던 5일 밤(한국시간) 장 선수의 어머니 이현자(54·예수사관학교) 전도사는 TV로 생중계되는 딸의 경기를 지켜볼 수 없었

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예수사

배백 딸과 카카오톡으로 나는 대화 내용을 전해줬다. "우리 미란이 마음고생 많았다. 한순간을 위해서 그 많은 날 동안 애 썼어.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약속 지킨 감사기도...영혼의 금메달을 들어올리다

했다.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이 들 때면 신앙이 늘 큰 힘이 됐다. 영성수련원으로 유명한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도 서너 차례 다녀왔다. 장 선수가 예수원에 갈 때는 그녀의 '신앙 동지'이자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유도의 김재범 선수가 동행하기도 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도 장 선수에 대한 위로와 격려, 응원 메시지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매일 기도회와 매일 정기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8월 정기 기도성회

일시: 2012년 8월 16일(목, 저녁) ~ 23일(목, 저녁)
(오전 10:30, 저녁 7:30) 주일제외

강사: 조성근 목사

www.gaimelsan.or.kr
430-040 경기도안양시민안양구서1동238-14
Tel 031) 472-7212-6 Fax 031) 472-7211

www.gaimelsan.or.kr
417-853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도면하곡리 26-3번지
Tel 032) 937-9724-6 Fax 032) 937-9727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에 인양에 위치한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크리이더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하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베일기도회와 특별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령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절제하며 배척하는 교외종교와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루를 온전히 온배회하며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전모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어 사역자들은 원도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자기도 기도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 영혼과 심신, 생명의 큰 열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기도의 열매가 변화되는 사명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다 성령의 역사가 새롭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 용담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초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Tel (818) 306-4912

1982년에 시작된 갈멜산금식기도원은 365일 언제나 기도성회가 있으며 매주 목, 금, 토요일은 월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재 갈멜산 금식기도원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개교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매주간 약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과 기도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함, 그리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선교 : 대자립교회후원, 신학성결원지원, 경찰선교, 호스피스후원

국외선교 : 교회개혁, 건축, 사역지원
모스크바(임국현), 우즈베키스탄(김봉서, 장필주), 브라질(장규희), 파라과이(전원진, 박성진), 캄보디아(유재동), 니제르(홍사순), 멕시코(우상재), 일본(김병태), 몽골(김행동, 박승호), 네덜(이상덕, 김재규), 뉴질랜드(김호진), 호주(김주홍), 베트남(이영식), 인도(최승호), Hop선교회,대신세계선교회

연도선교 : 교회개혁과 현지사역지원, 사역지원
교회: 호송교회(미얀마), 코일바르도교회(호주), 이모도교회(산도우) 삼영교회(인도네시아), 마르타교회(수레산), 크리스나교회(말레이)

연도기도회: 타일리두후원

선교사위문물보내기
1998년부터 매년 성탄절에한국에서파송된교도교단교신교단체를예수수령2천명위해미주선교사님들께기증어선교워를풍물보내드리고있습니다.

선교지 편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렌카 마을에도 마찬가지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렌카 마을에도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목표로 기도하곤 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거의 모든 마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봅니다. 선교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의 부족한 삶으로 귀한 사역에 수종들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이지요. 언젠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7:9)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날에, 큰 무리 속에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실들이 렌카마을 형제들도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광경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이는 “삶으로 그리는 복음”의 결실이지요. 더불어 함께 일애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8월 2일)은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마태복음 1장을 시작으로 매일 한 장씩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를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신약의 마지막 장인 요한 계시록 22장을 묵상을 마쳤습니다. 지난 약 7개월 동안 거의 매일 묵상의 시간에 참여한 안드레스, 곤잘로 형제와 텔마 자매 등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이어 두 번째 신약을 마치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구약을 시작하게 되는데 인내로 긴 장정을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은 오전 6시 30분에 마을 사람들과, 10시에 겨자씨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오후에는 겨자씨학교 학생들이 말씀(마태복음) 생명의 삶 스펠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이지요. 언젠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7:9)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날에, 큰 무리 속에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실들이 렌카마을 형제들도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광경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이는 “삶으로 그리는 복음”의 결실이지요. 더불어 함께 일애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온두라스 치안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산페드로 학교(Fuente de Luz)가 있는 지역은 참으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6월 말에 교장 선생님이 은행에서 교사 봉급을 인출하여(46,000콜피라, 2,500불정도) 나오던 중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니다. 이로 인한 여파로 학교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장을 위시한 교목, 그리고 교사들을 위하여 특별히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3:6)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없이 선교할 수 없는” 시대에 주님의 진정한 능력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월 이후 사역비 중단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소위 “돈 선교”

학교 사역 산페드로술라 Fuente de Luz 학교

온두라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305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력있는 신앙인이 많이 양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컴퓨터와 영어 교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컴퓨터 시설(10대), 영어교재(DVD) 및 marching band 악기 2)안전 및 재정의 자립

아자꾸알과 겨자씨학교 사역 학기 종강 및 텔런트 경연대회: 지난 6월 1일 종강식과 함께 종강파티를 했습니다. 우등생에게 시상식을 겸하여 1, 2, 3등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텔런트 경연대회를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졌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림, 드라마, 노래로 자신들의 장기를 경연하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열심히 다하는 모습을 즐겨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확여행: 지난 6월 25일에는 아자꾸알과 학생들이 산업도시인 산페드로 술라를 방문하여 여러 공단을 방문하고 자연사 박물관과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 하였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방문을 허락하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신 아스트로 회사와 유진회사에 감사드립니다.

몽케카구아 겨자씨학교 사역 Brenda 선생님이 사역하시게 되었으며, 첫 학기입니다. 현재 43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미주갈멜산기도원을 찾아서

미주한인 지친 영혼들을 돕는다



원장 조성근 목사

미주갈멜산기도원이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87와 카탈리나 코너에 자리를 잡았다. 한국 안양과 강화 두 곳의 갈멜산 기도원을 통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돕고 있는 그가 또다시 미주 땅에 기도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를 들어본다.

“10년 전부터 미주지역에 기도원을 개원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주지역 성도들은 매우 바쁜 생활 속에 지쳐 있다. 불쌍한 마음까지 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원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쁜 이민의 삶으로 인해 한가로이 기도할 장소로 달려갈 수 없는 성도들이 타향 짐을 찾을 수 있도록 한인 타운에 기도원을 설립한 동기였다.

기도원 설립의 준비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2011년 12월부터 6가와 카탈리나 지역에서 집회를 시작한 조성근 목사는 집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장소를 물색했다.

현재 기도원은 교회자리여서 성전도 잘 꾸며져 있었고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식당도 있었다. 성전 외에 3개의 사무실은 기도원을 운영하며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파킹장 부족이 밤에 걸린다고 “파킹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제가 미국에 살아보질 않아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다행히 작지만 두 곳에 파킹장이 있고 주변 스트리트 파킹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미주갈멜산기도원은 안양기도원에서 전폭적으로 서포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혹자는 “그렇게까지 투자하며 기도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지만 조 목사는 꼭 필요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 기도원은 좋은 영적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리하면 미주한인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아직은 작은 숫자가 모이지만 매일 오전 10시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종일 기도원의 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 미주갈멜산기도원은 황건영 목사님과 김성희 전도사가 섬기고 있다.

“이번 7월 정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36시간이나 온 가족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LA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타주에 계신분이지요. 그분들은 한국 안양기도원의 소식을 듣거나 안양기도원에 왔었던 분들이지요.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기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감사함이 그 많은 물질이 소용됨에도 불구하고 미주 갈멜산기도원을 세운 까닭인 듯 했다.

“우리 기도원은 주일엔 예배가 없습니다. 주중에 와서 은혜 받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헌신

기도원 강사들이 함께 인도하며 주중 성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매 주간 2만5천여 명이나 된다.

기도원 사역을 하며 조목사가 중요하게 손꼽으며 병행하는 사역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신학생교육이다. ‘신학생은 이 땅의 소망이어야 한다. 오직 훈련된 탁월한 영성지도자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모토아래 1998년 GST(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훈련본부)를 설립했다.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학생교육이 아닌 실제 사역을 위한 영성훈련을 한다. 이 훈련을 진행하며 조 목사는 한국 교계를 미래를 꿈꾼다고 한다.

조 목사의 사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결식아동, 영세민을 섬기며 천사의 집, 사랑의 집, 안양호스피스 등 13개 단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16개국에 해외선교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8년부터 매년 각 교단과 선교단체들에 소속된 해외 선교사 1,500여명에게 위문품을 보내고 있다.



갈멜산기도원 담임 조성근목사(우)와 미주갈멜산 원목 황건영목사

하라는 의미이지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고 기도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면 개인 신앙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미주지역을 향한 영적 부흥의 갈망을 엿볼 수 있었다.

조성근 목사는 30년 전 교파를 초월한 성경중심의 기도원을 꿈꾸며 시흥 옆 안양초입에 기도원을 설립했다. 관악산 줄기의 높지 않은 산에 세워진 갈멜산급식기도원은 매일 성회가 있고 매주 목-토요일까지는 철야기도회를 갖는다.

이 성회들은 한국교계의 인정받는 부흥강사들과 건설한 목사님,

이처럼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오며 매일 일주일씩 미주갈멜산기도원 정기집회를 인도해야 함에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자 “피곤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며 “안양에 부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책임을 느낍니다. 미주갈멜산기도원은 성도들이 믿고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가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에 자리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목사는 총신대학교(Th.M/Th. D.cand)와 미국 ORU(D.Min)를 졸업하고 현재 갈멜산 급식기도원(안양, 강화, 미주)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생훈련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자 기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유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편집된 공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2013년 달력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일반달력/기독교달력

공장도 가격세일

- 달력/수첩 주문제작 가능
- 교회 로고와 이름 인쇄 가능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견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기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확보하고 몰라린 기법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용액 거울은 연주
- 동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반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공부저서익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히드수필기대상
EH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하면 50-60%의 광도를 절약하여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100% 50인치 크기
대형 LED 조명
대형 LED 조명
대형 LED 조명
대형 LED 조명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213-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14)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또 다른 기쁨, 할머니로서의 삶

큰 아들 진석이의 첫 딸 이름은 '예진'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예쁜 아기로 예능에도 뛰어나면 좋겠다'는 뜻으로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다. 진석이 이름의 '진'자가 돌림자가 되었다. 영어로는 'Ava Catherine Kang'인데 Ava는 full of life로 건강하라는 뜻이고 Catherine은 머느리 에이미의 중간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둘째 이름은 '수진'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우수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기가 순수하면서 그윽한 향기를 내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할머니인 내가 지어주었다. 수진의 영어 이름은 'Clara Jane Kang'인데 '밝고 총명하다'는 뜻이고 Jane은 그녀의 은혜로 얻은 딸이라는 뜻이다.

막내 손자의 한국 이름은 남편이 전주 강씨의 서열 돌림자인 '구'를 넣어 '진구'로 지어주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미국에서 명문가 가정에서 이주했으니 삼대 짝에도 가문을 빛내달라'는 소망을 담았다.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뜻의 Jack과 진석이의 영어 이름 Paul을 넣어 Jack Paul Kang이라고 영어 이름을 지었다.

첫 손녀딸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집에서 세 시간 넘게 떨어진 진석이의 집까지 수시로 예진이를 돌봐주러 다녔다.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허리아'라고 파스를 붙여가면서 기쁘게 손주를 돌보는 것처럼 나 역시 전혀 피곤한 줄 모르고 손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갔다.

손녀들은 머리에 피부색은 백인인 엄마를 닮았고 이목구비는 조금씩 진석이를 닮아간다. 첫째 예진은 아빠를 닮아 급하고 행동이 재빠르며 음악을 좋아한다. 둘째 수진은 동양적인 이목구비에 여성적인 성격이라 소꿉놀이를 하거나 인형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진이 종종 그릴 때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나와 잠 잘 통할 것 같는데, 언제까지 저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조금씩 서글퍼지기도 한다.

막내 진구는 엄마를 닮아 빠가 굵고 튼튼하며 셋 중에 머리도 가장 좋아서 어휘력이 풍부하고 표현도 잘한다. 두 누나 사이에서 자라며 언어나 동작을 빨리 배우고 따라 해서 그런 것 같다. 성격도 활발하고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며 명랑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막내 친구와 함께 유아 교실에 가서 놀아주곤 하는데 때때로 내가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면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어요'라며 나를 말리고는 스스로 손으로 맞추고 집어넣고 곧잘 한다. 아무래도 안과 수술을 잘하는 자기 아빠를 닮은 모양이다.

큰아들 가족이 다섯 명이라 다섯 개가 한 세트인 그림이나 조각들을 선물하곤 한다. 또 세 개가 세트인 물건을 보면 세 손주에게 주면서 "다정하고 행복한 형제 자매가 되라"라고 말해주기도 한다.

진영이도 첫아이와의 만남을 곧 앞두고 있다. 9월 18일에 베이비 샤워를 한다고 친구들이 모인다. 진영이 부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우지 모른다. 산후 때는 일이 바빠 아이를 조금 늦게 갖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가족계획을 세운 뒤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내심 걱정했었다. 늘 그랬듯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3년전 수진이 태어났을 때 진영이 부부가 수진을 안고 찍은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 매일 기도하는가 하면 오래전 남편과 중국여행을 갔을 때 사운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두 쌍의 조각상을 보며 기도하기도 했다. 그 조각상들은 중국 유명 조각가의 작품이었는데, 좀 비싸긴 했지만 작은머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선물로 주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왔었다. 하지만 응답이 없기에 혼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하며 안타까워했었다.

그런데 드디어 아기가 생긴 것이다. 리즈에게 그 선물을 줄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요즘은 태교에 도움이 되라고 이메일로 좋은 글과 아름다운 그림을 보내주고 있다. 무엇보다 내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되었던 성경 안에서 찾은 자녀교육의 몇 가지 원리를 두 머느리 모두에게 주며 자녀를 키울 때 이를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했다.

1. 건강한 자화상을 심어주어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도와줌(빌4:13).
2.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배우고 용기와 인내로 덕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함(갈6:9).
3.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어 신뢰와 존경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함(엡5:22-23).
4.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익히게 하여 참된 지도자의 성품을 키워줌(엡4:2).
5. 인간관계의 중요성으로 자기 일에 충실함은 물론이며 동료들과 상호협력하고 섬기는 관계를 맺음(빌2:4).
6.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정에서 부모들이 롤모델이 되고 특히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살전5:7).
7. 함께 교회에 가고 함께 섬기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면 자녀들의 삶이 안정을 얻게 됨(히10:22-25).
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당하는 모든 사람이 합동하여 유익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심어줌(롬8:29).

(다음호에 계속)



석은옥 여사

아프리카 기적의 선교현장으로 초대

10월 16-27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목회자/평신도 초청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욱 선교사)는 2012년을 '아프리카 방문의 해'로 정하고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교회 500여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터로 초대한다.

'2012년 아프리카 방문'은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탄자니아, 브룬디, 콩고, 우간다)지역에 18년 동안 이루어 놓은 사역의 현장을 소개하고자 준비했다.

이번 아프리카 방문하는 참가자들은 10월 16일 르완다 키갈리에 도착해 10월 19일까지 아프리카 선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원주민 강사들과 현지 선교사들의 "아프리카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월드미션 프론티어 현장 체험"을 통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선교센터(르완다, 콩고, 탄자니아, 우간다)를 방문해

아프리카 선교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현장체험 대신 개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참가자들은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아프리카 선교컨퍼런스 참가 후 아프리카 국립공원 사파리를 선택할 수 있다. 사파리 일정은 탄자니아 무완자(21일)-세링게티(22일)-응고콩고로(23일)-킬로만자로(24일)-케냐 나이로비(25)-귀국(26일) 일정으로 여행사의 안내로 진행된다.

또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장선교사사역으로 어린이, 청소년 위한 사역이 있을 예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욱 선교사는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1천개의 섬들을 향한 병원선 선교사역이 마지막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선교사역을 소개하면서 "중양아프리카 5개국에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선교현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초

대의 말을 전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1994년 르완다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선교단체로 1기 사역(1994-2000년)은 르완다 전쟁 난민을 대상으로 구제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감당했다. 2기 사역(2001-2006년)은 아프리카의 복음화 사역에 중점을 두고, 매년 여름 대규모 단기 선교단을 모집해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브룬디, 콩고)을 대상으로 복음화 대회를 개최했다. 3기 사역(2007년-2012년)은 아프리카 5개국 12개지역에 종합선교센터를 건축하며,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학생들을 한국유학 보내는 사역과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을 건립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5개국 10개 도시에서 선교센터 건축을 진행 중이고, 빅토리아 호수 병원선이 제작 중에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방문 문의 미국본부(408)345-1727, 한국지부(02)323-2932 (기시제공: 월드미션 프론티어)

(13면에서 계속)

단기선교와성탄중양장로교회 JG(15명)과 아틀란타 실로암장로교회(신윤일 목사)에서 15명이 7월 16일-25일 같은 기간 동안 오셔서 오전에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오후에는 겨자씨학교 학생들에게 음악캠프와 영어캠프로 섬겨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교회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 주간(8월 6-11일)에는 필라 우리교회(황규만 목사)에서 오셔서 단기선교로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사카고 포도원장로교회 양현표 목사님께서 방문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췌염소(양, 소, 토끼 등) 가족들을 제공하여 삶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췌염소 농장사역과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박상현 장로님)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두란노침례교회에서 두 신학생 장학금을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췌염소, 양들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 품종이 좋은 췌염소를 과테말라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8월 중)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교회 성장을 위하여: 아자구 알파, 푸에블로비에도, 세름, 몽케카구아
3. 새로운 지역 교회 개척지(나랑호, 우니온, 산로렌조, 몬테베르데 우니온)를 위하여
4. 제3기 아자구알파 성경학교(학생 8명)과 인텐시브 성경학교(안토니오, 다리오, 아구스틴)
5. 산페드로술라 뿌엔테 데 루즈 학교(재정 지원)와 아자구알파/



몽케카구아 겨자씨학교를 통하여 실력있는 신앙인 양성을 위하여
6. 8월 18일 OANSA(미국 AWANA) 지도자 훈련을 위하여
7. 동역자들을 위하여(Paz 목사,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Ingrid 교장, Yadira 선생, Brenda 선생, Andres 형제, Agustin 형제)
8.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랜카 인디언을 섬기는 장세균 선교사 드림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7797, Fax: (02)323-823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백경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군포시 길동로 879-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김포시 중앙로 1520-27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39-09-877-3282, 39-09-339-1778 VIA DEI GIULIANI 32-38 00173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새연교회 담임목사: 소경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명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승문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안곡교회 담임목사: 서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 1부예배: 오전 6:3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정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서서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Tel: (02)323-87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20-27

가정사역 칼럼



어떻게 프리포즈 하지요?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여성의 입장

여성들은 감동적인 프리포즈를 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TV나 다른 영상물들을 통하여 보여온 것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장면의 여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프리포즈하는 남성이 우물쭈물하다든지 소극적이고 소신 없는 태도를 보이면 자매들은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남성을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지요.

또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들은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이 프리포즈에 거절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며 며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뭔가 신중하고 철학적으로(?) 근사하게 프리포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되도록 심오하게 표현하려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프리포즈하기로 결정했다면 쉽고 명료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여성은 대부분 작은 정성에도 감동합니다. 책이나 테이프 같은 선물과 함께 간단한 편지를 써서 전해주십시오.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면 편지를 받은 것만으로라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는 간단한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형태로부터 프리포즈를 받은 것에 대해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능하다면 라이브 카페에서 자연과 함께 노래를 띄워보시거나 그 여성을 위한 편지를 방송에 보내보십시오. 조금은 당황하겠지만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진심해야겠지요. '주님 안에서 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너무 터프하게 대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동적인 시를 인용해 보내주세요.

시를 통해 결혼에 성공한 한 목사님의 경우

목사님께서 응혜원 시인의 감동적인 시를 옮겨 적어서 자매에게 보냈습니다. 아마 시인의 이름은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를 받은 지금의 사모님은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 사실은 그 당시 목사님은 그렇게 감성적인 분이 아니셨지만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사모님의 마음을 사게 되셨답니다.

남자는 100명의 여성에게 프리포즈를 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들이 한번 프리포즈를 했거나 몇 번 만났다가 있는 자매가 교제를 계속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배반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보복하려는 이상한 심리를 갖기도 하고 심한 좌절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실연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은 자신감이 없고, 처참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

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되지요. 하나님은 더 나은 최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100명의 남성에게 프리포즈를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거나 거부하는 것은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프리포즈를 거절해야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친절하면서도, 조심성 있게, 그리고 형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거절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형제들의 사랑고백

적지 않은 내성적인 형제들이 어떻게 고백할까 고민합니다. 형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매가 형제에게 호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랑을 고백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대화가 통하면 개인적인 만남(데이트)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십시오.

많은 남성들, 특히 내성적인 형제들은 여성이 전화를 한번 걸어주거나, 친절하게 받거나,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보내주거나, 받아주거나, 데이트에 한두 번 응해주는 것을 마치 자기를 완전히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절하며 예의바르게 행동하십시오. 여성들은 친절하고 매너 좋은 남성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여성을 누나나 여동생처럼 여기시고 자연스럽게 접근해보십시오. 신앙관, 구원의 확신, 가치관, 삶의 목표, 비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십시오.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건의 시간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거나 성경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초신자라면 자매에게 신앙에 관한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매들은 형제들이 자신을 신앙적으로도 이끌어주기를 원하지만 형제들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삶의 비전이나 계획, 인생관과 세계관 등에 대해서 솔직하면서도 넓고 깊은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감을 갖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랑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가 신뢰할만한 대상이라는 것과 사랑과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이성이라는 생각과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내성적인 경향이 강하다면 편지나 메일로 교제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 상대에게 정리된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보십시오. 상대방을 처음 만난 소감, 장점 등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장점도 나눠보십시오. 일단 서로가 상대의 장점을 인식하게 되면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사랑할 것은 오직 은혜뿐 (막3:13-19)

13절은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주님의 일꾼의 부르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 곧 성도들의 부르심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누구도 자신의 뜻에 따라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사람도 없

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일꾼이나 성도는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선택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일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전1:3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영광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화 성령 훼방죄 (막3:20-30)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롬3:23)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생활은 완전하지 못하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통로를 마련하시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훼방하는 죄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죄는 신성모독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아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별개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 또 훼방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하여 범죄할 지라도 성령을 훼방하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 (막3:31-35)

35절에서 '누구든지'는 빈부의 차별이나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 무식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루살렘교회성도들이 서로 다른 출신 성분과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협력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교회로 하나되게 하고 한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누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목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4:1-20)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네 종류의 밭의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단이 와서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탓이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으

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비결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이해하고 복종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성도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비결은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이 열매로 가려지듯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 여하에 따라 성도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 등불 비유 (막4:21-25)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5:8) 이 말씀은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빛이 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빛의 자녀가 됐으므로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까닭이 이것입니다(마 5:14).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라 어둡고 캄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이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토 복음의 잠재력 (막4:26-34)

가장 작은 것으로 인식됐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질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32절). 3-4m 크기로 자라서 새 때가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큰 위력으로 세계에 퍼졌는지 잘 압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음과 동시에 갈릴리 촌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퍼져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만큼 보잘 것 없이 보였지만 씨앗이 자라고 성장할수록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확장됐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렘2:14) 미미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현재 앞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음증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설교 / 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2013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다 음

(1) 미국전 미주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인명)와 기독교 관련 단체는 반드시 무료인쇄로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회(교회명, 거점명, 거점명(인명))를 수록한다.
 (3) 수도권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팀 담당에게 제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연락하여 별도로 리스팀 연락.
 (5) 리스팀 및 광고 접수: 지금 연락주세요

출판(표지)	3.5cm x 4.5cm	\$600.00
유료	전면발매	표지내면(2면, 9면)
		Back 인
		Back 인 내면 Inside
*전면발매일 경우 Inside에 특색을 넣으세요		
전면발매	15.5cm x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x 6.8cm	\$600.00
전면 1/4	15.5cm x 6.8cm	\$350.00
	7.7cm x 11.7cm	
전면 1/8	15.5 x 2.8cm	\$250.00
	7.7cm x 5.8cm	
뉴스 Letter	Letter size	\$100.00
속아름(교사전신판)	3.7cm x 7.5cm	\$200.00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6
 Tel: (718) 898-4400, Fax: (718) 898-0074
 E-mail: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Email: la@chpress.net

발행: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지난 2일 영국 BBC방송은 한국이 올림픽 금메달 순위 3등으로 온 국민이 흥분하고 있다고 특파원이 서울의 한 거리에 서서 보도했다. 초반이지만 3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지? 북한의 선전도 역시 놀라운 뉴스다. 그러나 동시에 BBC자막 뉴스는 이집트에서 또 다시 과격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리아 사태는 너무 심각해 코피 아난이 중재 역할을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 조짐을 말하기 어렵지만 첫째,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몰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도 열정 무슬림들과 과격 무슬림들은 전 세계 이슬람화 노력을

미스트가 전 세계 유대인들의 상황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1.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종교자유 박탈당함

7월 30일 힐러리 미 국무성 장관은 전 세계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아시아에서 종교 자유는 더 후퇴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 북한, 사우디를 종교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로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시아에서 종교 박해가 심한 나라로 이상 3개 나라 이외에 미얀마, 이란, 에리트리아를 꼽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일부 나라에서 신성모독죄와 종교자유를 더 제한하는 나라가 증가했다. 신성모독죄는 특히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국가에서 알라나 이슬람을 모욕하거나 코란을 찢는 행위는 무서운 신성모독죄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또 보고서는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소수종교인들을 억압하거나 종교문제로 사회문제가 발생해도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종교박해가 심한 구체적인 사례로 이집트에서 콥트교인들의 박해, 중국에서 티베트 불교인들의 박해, 이란에서 바하이 신자들의 박해이다. 파키스탄, 사우디, 인도네시아에서는



왼쪽에서 세번 째가 자살한 여신도



원목에서 세번 째가 자살한 여신도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혹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한다. 인도네시아에는 한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을 모독하는 전도지를 들렀다고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보고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잘못된 인권단체들의 거짓 정보에 근거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보고서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2. 베트남에서 노인 신자 분신 자살

최근 베트남에서는 한 할머니 기독교 신자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베트남에서 분신자살은 70년대 고디디엠 정권 때 많은 불교승려들이 분신자살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그 할머니의 딸인 따봉씨는 인터넷 블로그로 베트남의 인권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일

을 하는데 그로인해 작년에 체포, 구금되자 항의로 자살하고 말았다. 친척들과 신자들이 그녀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조차 200명의 경찰이 감시, 외부인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미국 대사관은 우려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3. 유대교와 유대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대교와 유대인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보도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정치의 핵을 이룬다.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장소는 분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보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전 세계 유대인 숫자는 1천 3백 58만명으로, 이스라엘에 5,703,700명, 미국에 5,275,000명, 러시아에 205,000명, 영국에 292,000, 프랑스 483,500명, 호주 107,500명, 캐나다에 375,000명, 독일에 119,000명(이상 십만 명 이상 거주 국가만 소개함). 유대인 81%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거주한다.

2. 유대교 종파: 일반적으로 유대교는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로 분류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극보수 정통파(Ultra-Orthodox), 현대파, 보수파, 개혁파로 분류한다. 유대인 열 명 중 한 명은 극보수 정통파로 본다. 반면 세속주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무려 42%나 된다. 세속주의자들과 보수파 신자들 간에 갈등이 심하다. 유대교도 갈수록 다원적 유대교로 변하고 있다. 즉 다양한 유대교가 생기고 있다.

극보수 정통파는 구약의 문자적 해석과 전통적 의식을 고집한다.

정치적으로는 시온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나 현대파, 보수파, 개혁파는 성경해석의 유연성을 주장하며 의식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개혁파 유대교 중에는 안식일을 기독교식으로 일요일로 할 정도이다.

3. 유대인의 정의: 유대인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자격이다. 정통파는 유대인 혈통주의, 특히 어머니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개혁파들은 비유대인 부모에게서 출생해도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4. 세속주의 영향과 보수화가 공



존: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 벤 구리온은 세속주의유대인으로 오래된 유대교 전통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탈무드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소위 하레디(본지 1395호 참조) 학생 수백 명에게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 하레디 학생들이 증가, 이스라엘에서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5.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반 유대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소개한다. 특히 헝가리 인구 60% 이상은 유대인을 싫어하고, 스페인은 50%를 넘고, 폴란드는 40%를 넘으며 반면 반 유대인 정서가 가장 낮은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이것은 구라파에서 반 유대정서와 반 무슬림 정서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코노미스트, 7월 28일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사회

2012년 교역자가족수련회 및 세미나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사회(회장 윤석길 목사)는 지난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012년 교역자가족 수련회 및 세미나'를 라스베가스 찬양교회(이은만 목사 시무)에서 개최했다.

'이민목회, 잘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주강사 피터홍 목사(G3교회 담임)는 열정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금번 교

역자가족수련회 및 세미나에는 남가주에서 93명, 현지에서 합류한 인원을 포함 100여명의 교역자가족들이 참석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민 목회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민목회에 다시 한 번 진력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세미나 후에 이어진 브라이스



성결교 목회자가족 수련회

캐년과 자이언 캐년 관광을 하며 교역자와 가족들이 서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사회)

베델 건축학교 제1기 핸디맨과정 수료식

베델건축학교(대표 정요한 목사) 제1기 핸디맨 과정 수료식이 지난 5일 미주베델교회에서 거행됐다. 지난 8주 동안 미국 건축물구조 및 건축도면 보는 법, 플래밍 응급조치와 수리방법



핸디맨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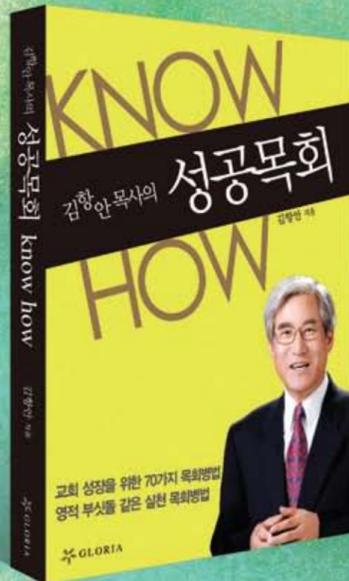
문짜수리와 교체, 설치방법, 전기시설설치 및 수리방법, 공기선별 및 실내 벽수리 등 가정집에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배기문 교수가 강의했다. 이번 수료생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주류를 이

루었는데 특히 선교사들이 의외로 관심을 많이 보인 가운데 32명이 수강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정요한 목사는

"적은 교회지만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다"며 무료로 강의해 준 배기문 교수에게 감사를 전했다. 배 교수는 "내게 주신 달란트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인데 선교사와 선교 지망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는 최명용 집사를 비롯, 32명의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었으며 다음 달에는 핸디맨 라이선스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자세한 것은 (213)422-9191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베델건축학교)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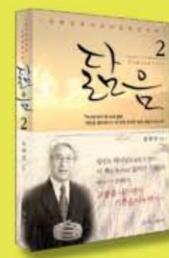
김항안 지음 384쪽 신국판 정가 12,000원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신티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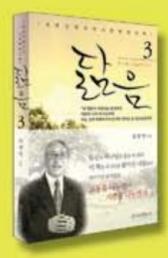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해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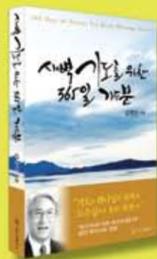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지음 415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종양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김항안 지음 390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김항안 목사 철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뮌헨 대학,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총회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리아 선교회 대표, 새한국종양교회의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은사와 교회성장', '대표기도문드북',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원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달음', '1997~2012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토대화"가 아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